

광 고

원양산업

제 1145 호

(2022년 5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물)

Contents



협회소식

- 2022년도 제1차 원양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 4
- 원양어선 안전펀드 설명회 개최 / 5
-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1차 회의 개최 / 6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2년 4월 보고 내용 / 7
- 요리 만들기 / 11
(오징어전)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3월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개선 / 12
- PNA 항구 전제, 1월 이후 최고치 / 12
- 마셜제도, GFW에 선망선 VMS 정보 공개 / 13
- PNA 내년부터 dFAD 등록 및 추적에 합의 / 13
- 솔로몬, 비나항 참치 가공 프로젝트 탐색 단계 / 13
- 이토추상사 MSC 인증 가까워져 / 14
- 필리핀·PNG 선단, MSC 인증범위 확장 추진 / 14
-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 회원사 MSC 생산량 공개 / 14

- 태국 1분기 참치캔 수출량 1% 감소 / 15
- FCF, 나우루 선망선 MSC 인증 가까워져 / 16
- 태평양 가다랑어·황다랑어 회유 경로 연구 발표 / 17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969 엔 / 18
- 日 2022년 3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19
- 케냐 등 11개국, IOTC 수역 3개월 dFAD 금지 제안 / 20
- 몰디브, 인도양 황다랑어 즉각적 감축 제안 / 20
- EU·몰디브, 인도양 가다랑어 어획 감축 권고 / 21
- 세이셸, 빅토리아항 확장 위해 1억 700만 달러 계약 / 21
- 동부태평양 1분기 가다랑어 어획량 2% 증가 / 22
- 만타 가다랑어 가격 1,850 달러 / 22
- Bolton 등, ICCAT에 참치 어획 전략 수립 촉구 / 23
- 트라이마린, 대서양 날개다랑어 어업 MSC 인증 근접 / 23
- SDGs에 대한 수산 대기업 공헌도 WBA 평가 / 24
- 2050년 세계 참치캔 수요 34% 증가 전망 / 24
- ISSF 회원사, 보존조치 준수율 99.6% / 25
- MSC 인증 참치 판매량 5년 내 2배 증가 / 25
- 美, 태평양 불법조업 근절 계획 곧 발표 / 26
- NGO, 美 정부에 대만 인신매매 등급 강등 요청 / 27
- 2021년 EU 참치 원어 수입, 12% 감소 / 28
- 2021년 EU 가다랑어 원어 수입 5만 4,718톤 / 29
- EU 황다랑어 원어 수입 23% 감소 / 29
- EU 참치캔 가공업자 날개다랑어 수요 5년 내 최저 / 30
- 유럽 참치 수입업자, 달러 강세로 원가 부담 / 30

Contents

- 에콰도르 참치캔·자숙로인 수출량 3% 증가 / 31
- 이탈리아 참치캔 수입량 증가했지만 낮은 수준 / 31
- 타이유니온, 인도 합작 기업 설립 / 32
- 타이유니온, 오메가-3 연구소 개방 / 32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2월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 46% 감소 / 33
- 아르헨티나 선주협회-오징어 구매업체 간 MOU 체결 / 34
- 일렉스오징어 13주차 가격 톤당 3,669 달러 / 34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명태 어업 A시즌 종료 / 35
- 2022년 4월 18일 러시아 어획량 157만톤 / 36
- 유럽 가공업체, “러시아 명태 대체 불가” / 36
- B시즌 명태 PBO 톤당 5,000 달러 넘어설 가능성 제기 / 37
- 日, 미국산 명태 연육 수입가격 최고 수준 / 37
- 알래스카 명태 부가가치 제품 생산 증가 / 38
- 日, 러 제재 피해 수산가공업자 보조금 예산 편성 / 38
- 일부 기업, 러시아 보이콧에 난색 / 39
- 17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 / 39
- 노르웨이,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조치, 어선은 제외 / 40
- 페로제도, 러시아 제재 승인...어업 미적용 / 40
- 러시아 수산업계, 투자 쿼터 프로그램 중단 요구 / 41
- 제30회 러-중 어업위원회 개최 / 41

■ 꽁치어업 동향

- 日 2022년 1월 꽁치 재고량 6,987톤 / 42
- 日 공해 꽁치조업 3년 연속 미 실시 / 42

■ 각국 수산 동향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1,198.5 달러 / 43
- 美 4월 신선 수산물 매출 감소 / 44
- EU 의회, MPA 저충트롤어업 금지 개정안 채택 / 44
- 中 중산층, 돼지고기 대신 수산물 소비 증가 / 45
- 日 3월 가계조사, 어패류 지출 4% 감소 / 45
- 컨테이너 운임 다시 상승, 높은 수준 유지 예상 / 46
- 선원표준 ‘FISH’, 선망·트롤 3개 선단 감사 완료 / 46
- 수산물 대체식품 투자, 2021년에 2배로 증가 / 47
- EU, 전쟁 피해 수산업자 2차 지원조치 제안 / 47

■ 쉬어가는 난 (시)

- 동해바다 <신경림> / 48

■ 국내 수산 정보

- 오징어 국내 동향 / 49
- 명태 국내 동향 / 51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취임 첫 해양수산 현장 행보 / 53
-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협의회 개최 / 54
- 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 54
- “수산정책 대응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 55
- 복잡한 수산분야 외식업 동향 파악한다. / 56
- 어한기 물가안정 위해 비축 수산물 5,395톤 공급 / 56

2022년도 제1차 원양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5월 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상견례, 임금교섭 시작



원양 노사는 지난 5월 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원양노사단체교섭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양산업노조 박진동 위원장 등 7명, 사측 박상진 위원장 등 6명, 우리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소기동 부장이 참석했다.

노측 박진동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외환경 변화에 맞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의 틀 마련이 필요하며, 시간 끌기식 교섭을 지양하고 임금협정을 조기 타결해 노사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측의 성의 있는 교섭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사측 박상진 위원장은 『그동안 노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의를 통해 잘 극복해왔고 노측이 제시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로의 변화에 공감하며 지금도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노측에 대신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측은 월 고정급, 보장급 인상 등 ‘2021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 공통 개선요구(안)’에 대해 각 항목별로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노측 요구사항 △주부 식비, △참치연승 업종 생산 수당제로의 전환, △품치 봉수망 보합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설명회 개최

전 업종 확대, 해외 조선소 사용 가능, 중고선 지원 검토



‘원양어선 안전펀드 설명회’가 지난 4월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세계로선박금융(주) 박현주 이사, 원양업계 7개사 임직원, (주)강남, 우리협회 신현애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계로선박금융은 원양어선 안전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설명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대상이 기존 채낚기·봉수망에서 선망·연승·저연승·트롤로 확대되었다. 총 펀드 규모는 올해 예정된 150억 신규 출자를 포함해 570억(정부재원 50%인 278억)이다. 정부 지원 50% 후순위 무이자 대출, 시중 은행 30~40% 선순위

대출, 자담 10~20%로 이루어지며 선박 인도 후 3년 거치 12년 상환 조건이다.

세계로선박금융 측은 이외에도 해외조선소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내 조선소에 우선순위가 있으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해외조선소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중고선 도입의 경우 올해 사업에서 제외되었지만 내년엔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4월 말 공고, 5월 내 사업자 선정, 8월까지 선박 건조 계약 추진할 예정이나 사업 수요 및 업계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1차 회의 개최

14개 기관, 인권침해 예방 관련 활동 공유

선원과 관련된 14개 기관이 모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 단체별 활동내용 등을 공유·협의하는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회의(1차)가 지난 4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를 비롯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우리 협회 등 관계 기관 인권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각 기관은 선내 인권침해 예방 관련 2021년 실적 및 2022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교육기관의 경우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예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선내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실적 및 계획으로 제시했다.

우리 협회를 비롯한 선주 관련 기관은 관련 교육, 실태조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 및 계획을 알렸다.

한국해운협회는 선내 인권문화 개선을 위한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해 선사에 배포했고 선사 및 선박 관리회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선내 갈등관리 교육' 강사 양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발생여부가 가치를 두고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점검 평가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를 통한 현장중심(방선)의 인권침해 예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협은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 공유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협회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로 승·하선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원·노동권·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해기사협회는 협회 어플 내 인권상담코너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 요리 책자를 추가로 제작·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사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반장 부이사관	장묘인	前) 해양수산부
◇ 장관실 비서실장	기술서기관	정기원
◇ 수산자원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임태호
◇ 지도교섭과장	서기관	임창현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4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세네갈-세계은행, 다부문 지원 협약 체결

- Abdoulaye Daouda Diallo 재정
예산부 장관과 Nathan Belete
세계은행(WB) 서아프리카 지
국장이 4.12(화) 총 4억 9,500만 USD(2,722.5
억 Fcfa) 규모의 4개 협약에 서명.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618
	1.8kg	1,571
	1.5kg	1,385
황다랑어	10kg	2,951
	3.4kg	1,666
	1.8kg	1,571
눈다랑어	10kg	1,618
	3.4kg	1,618
	1.8kg	1,571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354 유로/MT	경유	'22.4.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코로나19 현황

- 입국자 격리가 전면 해제된 후에도 현재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약 2~3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부 관광객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7일 격리 규정을 무시하고 돌아다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방역당국이 예의주시 중.
- 현재 피지에서 코로나 경계수위는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노약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기울이는 중.

나. 한-피지 해기면허 상호인정 MOU 체결

- 현재 피지에서 운영되는 선박에 승선중인 한국선원들의 한국 해기면허 인정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왔기에, 한국 대사관측의 노력으로 한국-피지간 해기면허 상호인정 MOU를 체결.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195달러/MT	M.G.O	'22.5.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7~1.2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3~0.7톤 가량.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코로나 누적 감염자는 현재 5,837명이며, 완치자 5,728명, 사망자 28명. 현재까지 모든 학교 및 공공단체 모임 금지.
- 필수 사업은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 영업을 시행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통행금지. 스타키스트 통조림 공장은 특별 예외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가동 중.
- 아메리칸사모아 방역 상황:
 - 모든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5일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하와이에서 탑승 전 48시간 내에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전 탈로파패스에 등록해야 함.(5세 이하는 검사 제외)
 - 4월부터 모든 입국자는 음성 이면 격리 없이 귀가 조치하고, 양성자는 7일간 의무 격리.
 - 모든 하와이 출국자는 3차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 시 별도 검사 없이 비행기 탑승 가능.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950	
눈다랑어	라운드	1,750	
가다랑어	라운드	1,7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3.89(gallon)	'22.5.9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

가. 수산기업 Sealord, 해저산 트롤선 조업 감축 촉구

- 뉴질랜드 수산기업 Sealord가 해저산(Underwater mountain, Seamount) 트롤선 조업 감축을 업계에 제안함.

- 해저산의 11%에서만 조업하고 나머지는 조업을 금지시켜 자원 보호와 경제적 활동 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을 주장함.
- 트롤 조업 100% 금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간주됨.

나. 중국 봉쇄조치, 랍스터 산업에 타격

- 중국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해 뉴질랜드 랍스터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음.
- 4~5월이 일반적으로 가장 수출이 많은 기간이나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정상화가 되기까지 최소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	종류	가격	조사일
Z	MGO	\$1,494/MT	'21.5.3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850	Sea Jho Co LTD.
	L	3,850	
	M	3,550	
	2M	2,850	
	S	3,000	
	2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이해관계자 국제회의 개최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과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국가기구(OACPS)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지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수도 Accra에서 논의함.
- 2년마다 열리는 OACPS 각료회의의 일환이며, 이번이 제7차인 이번 회의에서는 "OACPS Blue Economy Agenda 2030 -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과 양식 개발 촉진"을 주제로 진행됨.
-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기술 회의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어업과 양식 분야의 부분의 가치사슬 확대와 식량 체계 변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또한 2030년 어업과 양식업을 위한 OACPS 전략 계획의 초안을 논의함.

나. Dadzie 수산위원회 집행위원장 해임

- Akufo Addo 대통령은 수산위원회 집행위원장이 Mr. Michael Arthur Dadzie를 전격적으로 해임.
- 수산위원회는 수산양식개발부(MoFAD)의 시행기관이며, 어류 보건, 수확 후 활동, 안전 및 품질 보장을 포함하여 가나 어업 개발 및 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모니터링, 통제, 감시, 평가 및 준수 기능을 담당함.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000	
	10kg 하	1,600	
가다랑어	3.4kg 상	1,500	
	1.8kg 상	1,500	
	1.5kg 상	1,450	
	1.5kg 하	1,1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금유	1,140달러/kl	M.G.O	'22.4.30	
항만금유	1,180달러/kl	M.G.O	'22.4.30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한국-페루 무비자협정 재개

- 2020년 4월 13일 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한국-페루 간 무비자 협정이 재개됨.
- 한국 국적 관광객·수리기사·공무감독·회사 출장자들은 2022년 5월 1일 0시부터 무비자 페루 입국이 가능함.
- 입국자는 백신 1, 2, 3차 접종 증명서를 필수 지참해야 하며, 페루 도착 후 격리조치는 없음.
- 선원들의 페루 입국 시 국적에 무관하게 페루 비자는 불필요하며, 이하의 서류 4종 지참 필요.
 - 백신 1,2,3차 접종 확인서.
 - Letter of Guarantee(보증서, 대리점 발급)
 - 선원들의 48시간 페루 체류 승인서(대리점에서 작성 및 페루 출입국 사무소 경유한 서류)
 - 페루 보건부에 제출할 건강 확인서(대리점에서 발급하여 사전 송부 가능)
- 페루 도착일 또는 익일 승선용 PCR TEST, 음성 확인 즉시 승선가능.

나. 2022년 페루 중·북부 수역 멸치조업 TAC 발표

- TAC : 2,792,000톤
- 조업개시일 : 5월 19일(5/4부터 15일간 시험조업 기간 이후)
- 조업수역 : 에콰도르-페루 국경수역 부터 남위 16도선까지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코로나에 따른 국제 선망선 PNG 입항률 제고

-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입항 및 환적을 허가하는 남태평양 항구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자, 남태평양 활동 선망선들의 파푸아뉴기니의 Rabaul항 이용이 증가.
- 현재 동 항구를 이용하는 한국 선망선 및 운반선의 수는 선망선 35척, 운반선 17척.
- 또한 대만, 중국 및 필리핀 선망선들도 동 항구를 이용하게 되어 PNG Rabaul항은 선망선의 대표적인 입항항으로 현재까지 이용되는 중.
- 라바울항은 환적을 허가하는 남태평양 항구 중 팬데믹 하에서 부동의 1위(70~90%)를 고수해 왔으며, 현재는 선원들의 입·출국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외국 선망선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선장 숫자가 30명 정도로 추산되며, 그 이유는 한국 선장의 어획이 타 국가의 선장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함.

나. PNG 연승선 조업 현황

- 한때 PNG에 거점을 두고 연승선 조업을 해 오던 대만선사(Fairwell)가 2020년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PNG 자국 연승선은 자취를 감춤. 2021년 현지 회사로서 United Seafoods Ltd.의 어선 1척을 개조하여 연승선으로 활용한 것이 2022년 초반까지 유일한 연승 조업.
- 그러나 현재 Fairwell이 다시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이전과 달리 타 현지 회사를 통

한 용선식으로 입어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중국의 일부 연승선도 입어료를 내고 일부 입어중인 것으로 관측됨.
- Fairwell과 같은 입어 형태는 현지 규정상 국제 운반선을 통한 수출에 제약이 있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출하게 됨. 이때 조업된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은 고비용의 컨테이너 운반 및 품질 저하로 인해 효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상기 언급된 라바울에 입항하는 운반선을 이용하면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국제 운반선 이용 허가 취득 시도 중.

다. PNG FIA(수산협회)의 MSC 신청

- 현재 PNG 수산협회는 수출 상품인 Gulf 지역의 새우 및 Torres-Strait의 바다가재에 대한 MSC 등록을 추진 중이며, PNG 수산청에서도 수산협회에 등록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지원 중.
-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국 수산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틀을 재정립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됨.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바다가재 활어	\$31.5	0.5~1kg	
	\$52	1kg 이상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11.413달러/리터	Diesel	'22.5.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오징어전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통오징어 2마리, 다진돼지고기 1컵,
당근 1/4개, 부추 1줌, 숙주 1줌,
두부 1/4모, 전분 1/2컵, 계란 1개

<속양념>

간장 1/2큰술, 설탕 1/2큰술, 마늘 1/2큰술,
다진대파 1큰술, 굴소스 1작은술, 소금, 후추,
참기름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내장을 제거 후 다리랑 몸통을 분리한다.
- ② 오징어다리, 당근, 부추, 양파를 다진다.
- ③ 두부는 으갠 후 물기를 빼서 2의 소에 합친다.
- ④ 3의 재료와 다진 돼지고기에 양념을 섞은 후 계란물 1/2개, 전분가루를 넣어 치댄다.
- ⑤ 1의 오징어 몸통에 4의 재료를 넣고 이쑤시개로 고정 후 12분간 찐다.
- ⑥ 5의 오징어순대를 한 김 식힌 후 한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 완성한다.



3월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개선

선망선 척당 1일 평균 어획량 27톤...어가 1,900 달러

올해 3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은 11만 2,126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최고치였던 1월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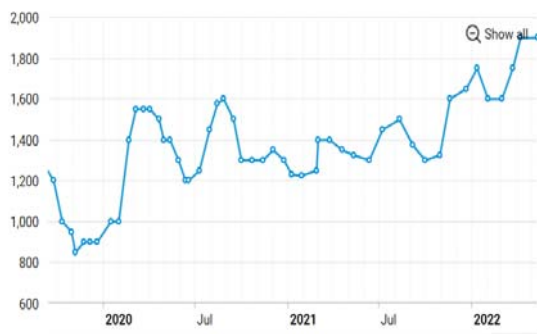
어획량의 대부분은 PNA 서쪽에서 발생했다.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총 PNA 어획량의 65%를 차지했다. 조업 노력량으로 보면 두 국가의 EEZ에서 56%가 이뤄졌다.

PNA 수역 전반에서 조업일수 사용이 증가했고 나우루는 증가, 투발루는 감소했다.

선망선의 가다랑어 척당 1일 평균 어획량은 약 27톤으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2019~2022년 평균치를 상회했다. 이는 2021년 9월 약 13톤으로 바닥을 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반면, 대형 황다랑어의 1일 어획량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2톤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어획량은 약 7톤이었다. 황다랑어 어획량 감소

는 라니냐 현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소형 황다랑어 척당 어획량은 소폭 상승했다. 다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4월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연료비 상승과 어획 부진으로 아시아와 중남미 허브에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국 방콕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1,900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1일자

PNA 항구 전재, 1월 이후 최고치

마주로 전재 급감

3월 동안 PNA 항구에서 2월에 비해 더 많은 참치가 전재되었다. 3월 전재량이 회복되면서 6개월 간 최고치였던 1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3월 중서부태평양(WCPO) 선망선에서 운반선으로 전재된 참치 어획물은 총 5만 8,985톤으로, 2월 전재량인 4만 5,337톤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3월 들어 선단이 더 많은 참치를 어획한 결과로,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했다. 3월과 1월의 전재량은 거의 비슷했으나, 어획량은 다소 적었다.

참치는 대부분 PNA 서부, 특히 PNG와 솔로몬제도에서 어획되었다. 그 결과 PNG 전재량이 급증

해 총 재량의 46%인 2만 6,000톤을 차지했다. 솔로몬제도 EEZ 어획량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Honiara나 Noro에서 전재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에서도 2월에 비해 더 많은 참치가 전재되었다. 특히 마이크로네시아 항구에서는 2월 전재량이 전혀 없었으나 3월 1만톤에 가까운 전재량을 기록했다. 반면 3월 마셜제도의 마주로에서의 전재량은 2월 3만톤 대비 크게 감소한 1만 3,000톤에 그쳤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2일자



마셜제도, GFW에 선망선 VMS 정보 공개

태평양 도서국 중 처음

마셜제도는 태평양 도서국 중 처음으로 자국 참치 어선의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데이터를 선단 위치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 소재 국제 비영리단체인 Global Fishing Watch(GFW)에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GFW 시스템에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보내는 GPS 위치로 선박의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지도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전 세계 7만척에 가까운 상선의 추적이 가능하고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8개 참치 조업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자료에 따르면 마셜제도 국적 선망선은 11척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6일자

PNA 내년부터 dFAD 등록 및 추적에 합의

FAD 자원 영향에 대한 이해 향상 기대

PNA 회원국과 토켈라우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유형 FAD(dFAD)에 부착된 전자 부이의 등록 및 추적에 합의했다.

PNA 사무국장 Sangaalofa Clark는 “추적 데이

터는 FAD 사용이 목표 어종 및 부수어획 어종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일자

솔로몬, 비나항 참치 가공 프로젝트 탐색 단계

추진 지연, 토지 구매 거의 완료

솔로몬제도 수산해양자원부에 따르면 비나항 참치 가공공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솔로몬 정부는 2020년에 이 프로젝트를 우선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수산해양자원부는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토지 구

매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산해양자원부는 프로젝트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파트너들과 함께 아직 탐색하는 단계라고 인정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5일자



이토추상사 MSC 인증 가까워져

사조그룹 선망선 6척 대상

적합성평가기관 SCS Global Services는 이토추상사의 해양관리협의회(MSC) 평가에 대한 공개 의견 초안 보고서(PCDR)를 발표했다. 예비 점수에 따르면 이토추상사는 조만간 MSC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어선은 사조그룹의 사조산업 4척(사조알렉산드리아, 콜롬비아, 패밀리아, 콘코디아), 사조요양 1척(포세도니아), 사조씨푸드 1척(포텐시아)이다.

이번 인증은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가다랑어 2개의 평가 단위(UoA)를 포함하고 있다.

적합성평가기관에 따르면 3가지 원칙에 대한 점수는 80점을 상회했다. 개별성과지표(PIs)로 보면 어획전략과 어획통제규칙(HCRs)은 각각 70점, 60점을 받았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아직 명확한 어획통제규칙이 수립되지 않은 영향이다.

이해 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6일자

필리핀·PNG 선단, MSC 인증범위 확장 추진

기존 PNG 수역에서 공해·PNA EEZ까지 확장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PNG FIA)가 태평양 내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적합성평가기관(CAB)인 SCS Global Service는 PNG FIA가 MSC 범위 확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목표는 기존 PNG EEZ와 군도 수역에서 중서부태평양 공해·나우루

협정당사국(PNA) 회원국·조인국의 EEZ 내에서 조업하는 전 PNG-필리핀 국적선의 인증 취득이다.

FIA는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3개 종에 대한 PNG EEZ와 군도 수역 스킨 조업 및 FAD 조업에 대해 MSC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14일자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 회원사 MSC 생산량 공개

12만 3,266톤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FIA)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FIA 회원들의 MSC 인증 열대 다랑어 생산량은 12만 3,266톤이다.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7만 3,217톤, 황다랑어 4만 6,692톤, 눈다랑어 3,357톤이다.

FIA 회원사가 보유한 선망선은 총 48척으로 지난해 363항차를 나갔다.

생산량의 74%가 방콕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되었다. 나머지는 파푸아뉴기니에 하역되어 현지 공장으로 향했다. 약 2년 전 자국 EEZ 및 군도 수역에서 해양관리위원회(MSC) 인증을 취득한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PNG FIA)가 태평양 내 MSC 인증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14일자



태국 1분기 참치캔 수출량 1% 감소

평균 수출금액 14% 상승

태국의 올해 1분기 참치캔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 감소한 11만 9,753톤을 기록했다. 수출금액은 4억 9,500만 달러이다.

톤당 평균 수출금액은 4,136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 상승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수출량은 2만 3,025톤으로 3% 감소했다. 톤당 평균 수출금액은 10% 상승한 4,682 달러이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량이 25% 감소했다. 여러 중동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집트 수출량은 5% 증가한 2만 429톤이다. 톤당 평균 수출금액은 2,822 달러로 가장 낮았다. 리비아는 113% 증가, 이스라엘은 93% 증가, 사우디아라비아는 39% 감소, 예멘은 48% 감소했다.

일본은 고품질 날개다랑어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톤당 평균 수출 금액이 5,309 달러로 가장 높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4일자

Thai Canned Tuna Exports Remain Stable

THAILAND: Export Canned Tuna

In M/T Major Destinations, CFR Value per 1 M/T, Q1

	Q1 2020		Q1 2021		Q1 2022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USA	32,240	\$4,199	23,858	\$4,251	23,025	\$4,682	-3%	10%
Egypt	11,858	\$2,544	19,435	\$2,482	20,429	\$2,822	5%	14%
Australia	8,430	\$4,319	9,508	\$4,214	10,502	\$4,773	10%	13%
Saudi Arabia	8,612	\$3,413	8,638	\$3,575	5,233	\$4,238	-39%	19%
Japan	8,895	\$4,534	6,722	\$4,648	5,801	\$5,309	-14%	14%
Libyan	6,748	\$3,352	4,687	\$3,354	9,983	\$4,008	113%	20%
Canada	7,587	\$4,001	7,784	\$4,202	5,845	\$4,782	-25%	14%
Israel	4,330	\$3,516	2,402	\$3,637	4,640	\$4,158	93%	14%
Yemen	4,558	\$3,358	4,044	\$3,300	2,116	\$4,034	-48%	22%
UAE	3,437	\$3,495	2,885	\$3,626	4,351	\$4,327	51%	19%
Chile	3,081	\$3,122	3,016	\$3,102	2,615	\$3,754	-13%	21%
Peru	3,723	\$3,518	2,909	\$3,515	1,067	\$4,225	-63%	20%
South Africa	1,842	\$3,082	1,613	\$3,391	1,460	\$3,588	-9%	6%
Russian Fed.	1,033	\$3,113	1,819	\$3,277	1,441	\$3,898	-21%	19%
Switzerland	1,551	\$4,719	809	\$4,526	1,736	\$5,030	114%	11%
Others	25,731	\$3,516	20,354	\$3,436	19,510	\$4,011	-4%	17%
Grand Total	133,654	\$3,716	120,485	\$3,631	119,753	\$4,136	-1%	14%

Powered By Atuna Analyst

Source: Thai Customs



FCF, 나우루 선망선 MSC 인증 가까워져 3가지 원칙에 대한 점수 80점 이상

인증평가기관 SCS Global Services가 대만 참치 무역업체 FCF의 MSC 인증 평가에 대한 공개 의견 초안 보고서(PCDR)를 발표했다.

SCS Global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인증에는 나우루 국적 선망선 FAD·스쿨조업이 포함된다. 인증 단위(Uoa)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3가지이다. 해당 어선의 조업 수역은 나우루 EEZ와 PNA 회원국 전체 수역이다.

인증 대상 나우루 국적 선박 20척의 이전 국적은 미국(9척), 파푸아뉴기니(9척), 한국(2척)이다.

FCF는 중서부태평양에서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한 서태평양지속가능참치동맹(WPSTA)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눈다랑어와 대만 국적 선망선 11척에 대한 추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3가지 원칙에 대한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두 가지 주요 지표인 어획 전략과 어획통제규칙은 각각 70점과 60점을 받았다. ETP종(멸종위기, 멸종우려종, 보호종)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전략은 70점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5월 28일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5일자

11.16 Vessel List

No.	Vessel Name	Company	Owner	RFMO Number	IMO#	Reg. Number	Vessel Size (GRT)
1	Century Pride	OCEAN PRIDE CO., LTD	OCEAN PRIDE CO., LTD	18972101	9417397	NMA-1028	1416
2	Century Ranger	OCEAN RANGER CO., LTD	OCEAN RANGER CO., LTD	19992102	9394789	NMA - 1029	1415
3	Eastern Marine	EASTERN MARINE (NAURU) LIMITED	EASTERN MARINE (NAURU) LIMITED	16992104	9217369	NMA-1016	1099
4	Eastern Star	EASTERN STAR (NAURU) LIMITED	EASTERN STAR (NAURU) LIMITED	19872105	8996097	NMA-1017	2386
5	Kaile 888	JOHANNA SEAFOODS CO., LTD.	JOHANNA SEAFOODS CO., LTD.	19912106	9708241	NMA-1019	1349
6	Malva 888	SEARICH SEAFOOD CO.,LTD.	SEARICH SEAFOOD CO.,LTD.	10962108	9761396	NMA-1020	1562
7	Marita 88	DEVELOPMENT SEAFOOD CO., LTD.	DEVELOPMENT SEAFOOD CO., LTD.	11942107	9720354	NMA-1021	1557
8	Simbun 88	GP SEAFOOD CO., LTD.	GP SEAFOOD CO., LTD.	12992113	9745469	NMA-1022	1562
9	Naoero Star	Nauru Fisheries Development Corporation	Nauru Fisheries Development Corporation	10872109	8813477	NMA-10011890	1742
10	Naoero Sun	Nauru Fisheries Development Corporation	Nauru Fisheries Development Corporation	10832110	8812203	NMA-10021890	1742
11	New Canoe	NEW CANOE CORPORATION LIMITED	NEW CANOE CORPORATION LIMITED	11912103	9746281	NMA-1031	1350
12	New Marine	NEW MARINE CORPORATION LIMITED	NEW MARINE CORPORATION LIMITED	12932115	9745823	NMA-1032	1350
13	New Splendor	NEW SPLENDOR CORPORATION LIMITED	NEW SPLENDOR CORPORATION LIMITED	13912116	9771951	NMA-1033	1350
14	Ocean Challenger	OCEAN CHALLENGER (NAURU) LIMITED	OCEAN CHALLENGER (NAURU) LIMITED	15942117	9517264	NMA-1035	1517
15	Ocean Conquest	OCEAN CONQUEST (NAURU) LIMITED	OCEAN CONQUEST (NAURU) LIMITED	11932119	9097343	NMA-1041	1416
16	Ocean Encounter	OCEAN ENCOUNTER (NAURU) LIMITED	OCEAN ENCOUNTER (NAURU) LIMITED	12812120	8996281	NMA-1042	1517
17	Ocean Expedition	OCEAN EXPEDITION (NAURU) LIMITED	OCEAN EXPEDITION (NAURU) LIMITED	13972121	9097367	NMA-1043	1416
18	Ocean Galaxy	OCEAN GALAXY (NAURU) LIMITED	OCEAN GALAXY (NAURU) LIMITED	14802122	8996310	NMA-1044	1517
19	Ocean Warrior	OCEAN WARRIOR (NAURU) LIMITED	OCEAN WARRIOR (NAURU) LIMITED	16972118	9097317	NMA-1036	1517
20	Oriental Marine	ORIENTAL MARINE (NAURU) LIMITED	ORIENTAL MARINE (NAURU) LIMITED	18972114	9217357	NMA-1018	1099



태평양 가다랑어·황다랑어 회유 경로 연구 발표

회유 경로 보호 지정 필요성 제기

국제학술지 MDPI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들이 연구한 '태평양 대형 원양어류의 보존수역 및 잠정 폐쇄적 이동주기를 정의하기 위한 도구로서 회향광(Philopatry as a Tool to Define Tentative Closed Migration Cycles and Conservation Areas for Large Pelagic Fishes in the Pacific)'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은 태평양 대형 원양어종 11개종의 회향광(산란을 앞두고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연구해 잠정적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가다랑어는 태평양 내 북위 40°, 남위 40°에서 발견되며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0° 이내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더 많이 서식한다. 가다랑어가 주로 분포하는 수심은 115 미터 이상으로, 이 위치에서 매우 성공적인 가다랑어 어획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북태평양 서부의 가다랑어 서식지 분포가 18.8~28.2°C인 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가다랑어의 계절에 따른 서~동부 이동(중서부~동부태평양)이 수온에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결론지었다. 산란은 해수면 수온 24°C 이상인 바다에서 주로 발생했다.

서부태평양에서는 북위 40°~남위 40°에서 성체 황다랑어가 발견되며, 동쪽 경도에서는 범위가 더 좁아진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치어(Juvenile, 성체와 유체 사이의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는 따뜻한 물을 선호한다. 유생(Larvae)은 북위 23°~15° 사이에 분포한다. 일부에서는 분포가 중서부태평양/동부태평양 공해의 북위 10°~남위 5° 사이로 더욱 제한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아성체는 하와이에 이를 정도로 북쪽에 분포한다.

황다랑어는 남~북 이동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전반적으로 태평양에서 황다랑어의 이동 경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출처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중부태평양에 3개 자원이 서식하고, 비스마르크(Bismarck) 해와 필리핀해, 멕시코 연안을 따라 2개 하위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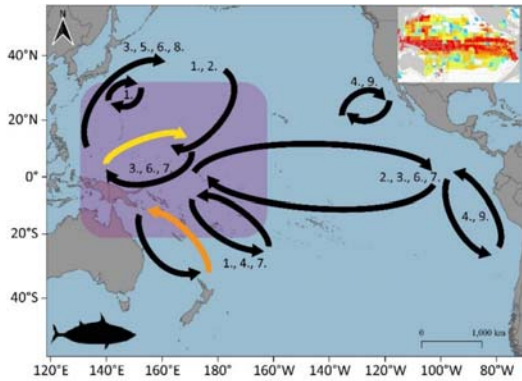
눈다랑어는 9°C~28°C 사이의 낮은 수온과 따뜻한 수온에서 모두 발견된다. 산란지는 연중 적도 지역에 걸쳐 있으며, 특정 달 정점에 도달한다. 일부 연구는 단일 자원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연구에 따르면 동부와 서부에 각각 자원이 분포한다.

어업자들은 북위 40°~남위 40° 사이 3개 대양에서 모두 날개다랑어를 어획해왔으나, 적도 수역의 날개다랑어는 개체수가 적고 400m 이하의 깊은 수심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부분 심해 연승어업으로 어획된다. 유생은 중서부~동부태평양 사이의 북위 20°~남위 20° 부근에서 주로 발견되는 반면, 치어는 북반구의 쿠로시오와 캘리포니아 해류를 오간다. 두 해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채낚기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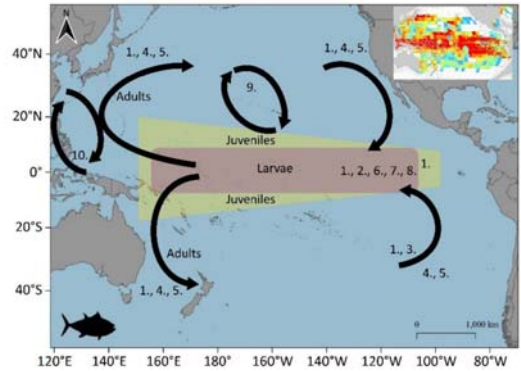
해당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산하 국제 연구 이니셔티브인 'Sea Around Us'의 수석 조사원인 Daniel Pauly 박사는 Science Daily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고밀집 지대 중 태평양 북동부와 중부 구역은 '청색 통로(blue corridor, 별개의 해양 보호구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로 지정되어 엄격한 어업 관리 조치나 상업적 어업의 부분적 금지 조치를 시행해 해양생물종의 개체수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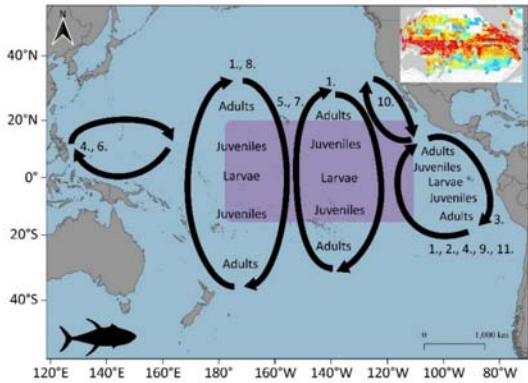
<가다랑어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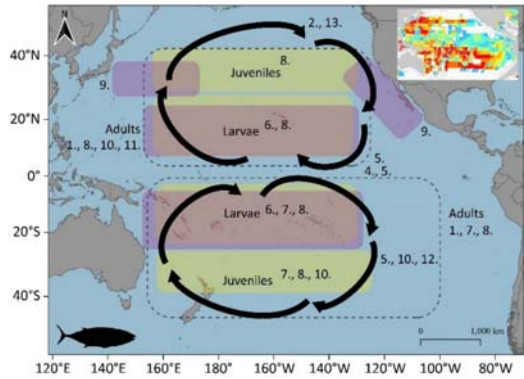
<눈다랑어 이동 경로>



<황다랑어 이동 경로>



<날개다랑어 이동 경로>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0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969 엔 수입량 3,531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3월 수입 실적은 선어, 냉장 제품 수입량 538톤(지난해 동월 대비 26% 감소), 수입액 6억 2,500만 엔(40% 감소), 냉동 제품 1만 1,767톤(28% 감소), 142억 2,700만 엔(4% 감소), 가공품 4,168톤(12% 증가), 26억 9,000만 엔(29% 증가)을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3,531톤(36% 감소)으로 2월 수입량인 3,880톤 대비 감소했다. 이 중 주력인 대만산의 단가는 kg당 969 엔(436% 상승)을 기록했다. 황다랑어 GG 수입량은 2,954톤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일자



日 2022년 3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3월 누계 3만 2,210톤

(단위 : 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누계
날개다랑어	한국	113	6	16	135
	대만	625	298	49	972
	바누아투	-	1	71	72
	기타	15	15	-	30
	소계	754	321	1,211	2,286
황다랑어	한국	221	210	596	1,027
	중국	47	284	120	451
	대만	603	1,031	1,318	2,952
	필리핀	123	-	131	254
	인도네시아	-	-	-	0
	미국	-	-	-	0
	바누아투	148	24	72	244
	피지	23	50	-	73
	키리바시	29	-	-	29
	마셜제도	551	-	149	700
	기타	564	587	568	1,719
	소계	2,309	2,187	2,954	7,450
눈다랑어	한국	11	30	27	68
	중국	177	467	502	1,146
	대만	1,372	2,158	2,438	5,968
	세이셸	103	874	-	977
	바누아투	138	318	-	456
	기타	135	32	310	477
	소계	1,937	3,880	3,531	9,347
남방참다랑어	한국	449	-	-	449
	대만	95	5	-	100
	호주	-	-	-	0
	소계	544	5	-	549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5월 10일자



케냐 등 11개국, IOTC 수역 3개월 dFAD 금지 제안

EU, 생분해성 dFAD의 점진적인 의무 이행 제안

케냐 포함 11개국(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잠비크,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서 dFAD(부유형 FAD) 등록부를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등록부에는 부이의 고유 번호(unique reference number), 소유자 이름, 선망선 선명, IOTC 선박 등록 번호와 국적, 부이 제조업체 및 모델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선망선이 해당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dFAD 개수는 150개로 한다.

회원국이 좌표(grid area), 월별 어획량 및 어획 노력, dFAD 유형별로 자국선에서 분실·방지·폐기된 부이의 수를 매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황다랑어 치어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9월 30일 연중 3개월 dFAD 사용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EU는 생분해성 dFAD의 점진적인 의무 이행과 기기의 책임·보고·회수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제안했다.

EU의 제안을 살펴보면 선망선과 지원선만이 dFAD, FAD 부이(Flating OBject buoys)를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선망선이 해당 한 번에 운영 가능한 최대 부이 수는 2023년 1월 1일부터 280개로 하며 2025년 초부터 260개로 줄인다. 400개 이상의 부이(비축 또는 활성화)를 선상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보고 측면에서 EU는 케냐 제안과 마찬가지로 dFAD 부착 부이에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된 물리적 태그를 영구적으로 붙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그는 고유 번호, IOTC 선박 식별 번호를 포함해야 하고 영구적이며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EU는 또한 선박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비생분해성 재료(부표에는 미적용)로 만들어진 dFAD를 더 이상 배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9일자

몰디브, 인도양 황다랑어 즉각적 감축 제안

EU 올해 감축 원하지 않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가 5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으로 회원국들이 황다랑어 계획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몰디브는 과학적 조언에 따라 황다랑어 쿼터량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몰디브는 여러 연안국과 함께 원양어업국(DWFN) 국적 선망선의 어획량 대폭 삭감을 제안했다. 이제 몰디브는 황다랑어 자원이 2030년에 50% 이상의 확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어획량을 2020년 수준에서 20% 줄여야 한

다고 촉구하고 있다.

IOTC 과학위원회(SC)는 지난 2월 어획량을 2020년 수준(43만 956톤)의 60%로 줄이는 것을 권장했다.

한편, EU는 올해 어업 축소를 권장하지 않으며 황다랑어 결의안의 2023년 개정을 의무화하는 소위원회 개선을 제안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3일자



EU·몰디브, 인도양 가다랑어 어획 감축 권고

2020년 어획량, 쿼터보다 많아

다가오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업국이 인도양 가다랑어 어획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더욱 큰 규모의 감축을 원하는 유럽연합(EU)과 몰디브는 다양한 형태의 안을 제시했다.

EU와 몰디브는 오는 5월 중순 개최될 IOTC 연례회의를 앞두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EU는 과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어획량이 55만 2,111톤으로, 어획통제규정(HCR)에 따른 쿼터 대비 약 4만 1,000톤 많았다고 지적했다.

EU는 HCR에 규정된 어획 쿼터를 1% 이상 초과한 어업국의 2023년 쿼터를 2020년 쿼터 대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EU는 연안 개발도상국(CDS)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을 고려해 2023~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쿼터 감축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러한 국가에는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등이 해당된다. 해당 안에 따르면 최빈국(LDC)은 연간 어획량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2020년 대비 평균 어획량을 1,000톤 이상 늘릴 수도 있다.

몰디브는 가다랑어 어획량을 HCR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에 따르면 2020년 5만톤 이상을 어획한 선단은 어획량을 20% 감축해야 한다. 이는 EU와 세이셸 등 선망 조업 국가만이 아니라 몰디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DS는 10%를 감축해야 하며 SIDS와 LDC는 4% 감축해야 한다.

몰디브는 또한 선단 어획량이 5,000~2만톤인 경우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몰디브는 차후 2년에 걸쳐 초과 어획분을 공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6일자

세이셸, 빅토리아항 확장 위해 1억 700만 달러 계약

대형 선박 수용 능력 등 확대 예정

세이셸이 빅토리아항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이셸 항만청(SPA) 1억 7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빅토리아항 재건·증축 프로젝트가 시공사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SPA, 유럽투자은행, 프랑스 개발청, EU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빅토리아항 확장 프로젝트의 주요 2개 요소는 안

벽(quay wall, 항만의 수제선에 설치하는 계선안)·화물 터미널 건설과 흘수(draft) 14m까지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항구를 준설하는 것이다.

이번 공사에는 기존 부두에서 신규 부두로 대체 공사, 항만 야적장 면적 확장, 현대식 선박 수용을 위한 준설 공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Maritime Executive, 2022년 4월 29일자



동부태평양 1분기 가다랑어 어획량 2% 증가

황다랑어 7만 8,103톤 어획...눈다랑어 10% 감소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 상승의 이유로 동부태평양의 열악한 어획 상황이 지목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2022년 1분기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데이터에 따르면 오히려 가다랑어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눈다랑어 어획량은 크게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동부태평양 참치류 총 어획량은 16만 4,397톤으로, 2021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이 중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 증가한 8만 4,738톤이었으나, 눈다랑어 어획량은 10%나 감소한 7,737톤을 기록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 계절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자원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 2022년 1분기 황다랑어 어획량은 15%나 증가한 7만 8,103톤을 기록했다. 2021년 황다랑어 총 어획량은 4년 전에 비해 16%나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멕시코 선단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은 150%나 증가한 2,034톤을 기록했다. 파나마 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22% 증가한 1만 4,529톤이며, 참치류 총 어획량은 25% 증가한 2만 6,544톤이다.

양국 선단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했다. 파나마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30% 증가한 1만 1,224톤, 멕시코 황다랑어 어획량은 5% 증가한 3만 1,934톤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황다랑어 어획량은 80% 증가한 1만 2,964톤이며, 이에 힘입어 총 참치류 어획량은 51% 증가한 1만 5,217톤을 기록했다.

1분기 동안 황다랑어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중서부태평양 지역의 보고를 감안하면, 황다랑어 자원이 동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6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1,850 달러

조업 상황 별로 좋지 않아

현재 만타에서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3월 중순보다 50 달러 오른 톤당 1,850 달러이다. 이는 2017년 12월 2,100 달러 이후 최고가이다.

EU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다랑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 1,900 달러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일부 소식통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강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소식통들은 만타항에서 참치 양륙 상황이 좋다는 초기 자료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다랑어 가격 상승 요인은 경유 가격 상승과 별로 좋지 않은 조업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선

망선이 참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25일 이상을 항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페루 등 일부 선단이 지금까지 극도로 부진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자료에 따르면 2월까지 특히 가다랑어 어획량이 실망스러웠다.

만타에서 참치캔 가공공장의 수요는 강력하다. 일부 가공업자들은 스페인 선단이 인도양에서 조업한 참치와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된 참치를 구매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13일자



Bolton 등, ICCAT에 참치 어획 전략 수립 촉구

세계 참치 이해관계자 요구 높아져

세계 참치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보존 전문가, 유럽 수산물 시장 참여자 등과 함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 참치 자원에 대한 과학 기반 어획 전략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세계참치연맹(GTA)의 Tom Pickerell 전무이사는 Pew 자선재단, 참치보호연맹(TUPA), GTA, HarvestStrategies.org와 공동 주최한 최근 웨비나에서 “어획 전략 시행은 ICCAT가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해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Pickerell은 “참다랑어는 GTA의 소관 밖이지만, 올해 대서양 참다랑어에 (어획 전략이) 채택된다면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유사한 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GTA에 따르면, 어획 한도 설정을 위해 사전에 결정된 메커니즘은 더 나은 어획 규칙을 보장할 뿐만 아니

라, 구매자들에게 수산물이 잘 관리되는 어장에서 조달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다.

유럽의 참치 제품 최대 이해관계자인 Bolton Food사의 지속가능 개발 담당자 Hector Fernandez는 효과적이고 강제력 있는 어획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ICCAT 첫 번째 의제로 결정된 참다랑어 어획 전략에 지속가능한 대서양 열대참치 조달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웨비나 기간 동안, ICCAT이 올해 회의에서 대서양 참다랑어를 시작으로 상업용 참치에 대한 어획 전략 실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서가 참석자들에게 공유되었고, 이해관계자 전원이 해당 성명서에 동의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4월 26일자

트라이마린, 대서양 날개다랑어 어업 MSC 인증 근접

대서양 날개다랑어 연승어업 평가점 80점 이상

미국 트라이마린사(社)가 또 다른 MSC 인증 취득에 근접했다.

트라이마린은 대서양 날개다랑어 연승어업에 대해 적합성평가기관(CAB)인 SCS Global Services로부터 세 가지 어업 표준 원칙 모두에 평가점 80점을 취득했다.

대서양 날개다랑어 어장은 북대서양, 남대서양 2

개의 평가단위(UoA)로 분류된다. 평가 대상은 대만 국적 참치 연승선(190~722톤급) 30척(29개 선사)이다. 해당 선단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관할 조업구역 31, 34, 41, 47에서 조업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14일자



SDGs에 대한 수산 대기업 공헌도 WBA 평가 타이유니온 1위

글로벌 비영리 지속가능경영 연합체인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는 세계 유수의 수산 기업 30개사에 대해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달성 기여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WBA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산 회사 30개사를 선정, SDGs 기여도를 평가한 것이다.

30개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1개 해당 영역에서 하

나 이상의 선도적 사례를 보여줬지만 전반적인 성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평가 지표에는 추적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약속이나 IUU 어업 관련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채택, 공급망에 아동 및 강제 노동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6일자

Rank	Company	Score	Rank	Company	Score
1	Thai Union Group	51.9	16	FCF Co., Ltd.	22.4
2	Mowi	46.1	17	Nippon Suisan Kaisha (Nissui)	18.6
3	Nueva Pescanova	42.9	18	Mitsubishi Corporation	16.4
4	Nomad Foods	42.7	19	Maruha Nichiro	15.9
5	Nutreco (Skretting)	40.1	20	Dongwon Enterprise	13.8
6	Cargill	39.5	21	Pacific Seafood Group	12.2
7	Austevoll Seafood	36.1	22	Kyokuyo	10.2
8	BioMar	35.8	23	Marubeni Corporation	9.8
9	Charoen Pokphand Group	35.5	24	Wales Group (Sea Value & Sea Wealth)	6.3
10	Royal Greenland	34.0	25	Trident Seafoods	5.1
11	Bolton Group	30.3	26	Yokohama Reito (Yokorei)	1.8
12	High Liner Foods	29.0	27	Red Chamber Group	1.6
13	SalMar	27.1	28	Cooke	0.7
14	Parlevliet & Van der Plas	26.2	29	Bright Food Group	0.0
15	Labeyrie Fine Foods	25.8	30	OUG Holdings	0.0

2050년 세계 참치캔 수요 34% 증가 전망

북미 감소, EU 유지, 아프리카·오세아니아 증가

태평양수산위원회(FFA)의 Taro Kawamoto 박사가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2050년까지 참치캔 수요가 현재 수준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북미 시장의 참치

캔 수요는 감소하고 EU는 2020년을 정점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수요는 2.6~3.0배 증가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16일자



ISSF 회원사, 보존조치 준수율 99.6%

32개 보존조치 준수여부 감사 결과 발표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은 202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5개 ISSF 참여 기업의 보존조치 준수율은 99.6%였다.

ISSF 참여 기업은 Bolton Group, Frinsa, Jealsa, Nirsa, Princes, Salica, Sapmer, Sea Value, StarKist, Tri Marine, Chicken of the Sea, Bumble Bee, General Tuna 등이다.

보존조치는 32개로 △참치캔 바코드 또는 송장에서 어선 및 조업 정보(trip)까지 추적 가능성 시연, △분기별 구매 데이터(어선, 조업 일수, 어종, 사이즈 등) 지역수산기구 제출, △상어·바다거북에 대한 모범 사례 구현 요구 정책을 보유한 연승선 선주만 한정해 거래, △상어지느러미 채취를 금지하고 채취하는 어선과의 거래를 피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발표, △선장이 ISSF로부터 부수어획량 감소와 같은 모범 사례에 대한 과학 기반 정보를 제공받은 선망선만 한정해 거

래, △지역수산기구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어선과의 거래 피하기 등이다.

2021년 감사 기간 동안 △어선 기반 FAD 관리 정책을 보유한 어선 또는 회사와의 거래, △사회 및 노동 기준에 관한 공개 정책이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25개 기업 모두 이를 완전히 준수했다.

보존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는 MRAG Americas가 실시했다.

ISSF는 개별 회사의 준수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미국 어업자문위원회(FIAC)는 3월 10일에 회의를 개최해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는 태평양에서의 미국 수산업 번영과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태평양 전략을 승인했다.

* 기사 출처: ISSF 홈페이지, 2022년 4월 22일자

MSC 인증 참치 판매량 5년 내 2배 증가

전 세계 생산량 39% 인증 취득

해양관리협회의(MSC)는 2021/22 기간 동안 MSC 인증 참치 제품의 판매량이 1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5년 전 5만톤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John West Australia, Walmart, Edeka, Aldi, Lidl, Waitrose, Rio Mare, Followfood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조달을 약속이 이러한 성장

을 뒷받침했다.

협의회는 2021/22 기간 MSC 인증 참치 생산량은 200만톤에 가깝다고 밝혔다. 2017/18 생산량은 100만톤 정도였다.

협의회는 전 세계 참치 생산량의 39%가 이미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2일자



美, 태평양 불법조업 근절 계획 곧 발표

자국 참치캔 산업 성장, 코로나19가 원인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5월 9일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불법 조업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안보외교전략센터(CSD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웠던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가 최근 중국과 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태평양에서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사실 불법 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안으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도록 고안된 중대 구상이 아마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 구상이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 일본 방문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한편 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캠벨 조정관은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전자 식별장치를 켜지 않을 때 항행

활동 추적을 계속할 수 있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발표될 불법조업 근절 방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나라가 순시선 동원과 훈련 등의 방식으로 불법 조업 대처 노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해안경비대는 국제 해양 안보에 해적 행위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대규모 선단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자국 선단들을 더 책임 있게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자국 선박들은 상호 협정에 따라 적절한 EEZ에서만 조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달 미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를 방문해 중국의 군사 기지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표명한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이 솔로몬제도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기사 출처: REUTERS, 2022년 5월 13일자



NGO, 美 정부에 대만 인신매매 등급 강등 요청

대만 업계, 성명 통해 개선 노력 설명

미국의 한 노동운동 단체가 대만이 자국 어선의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 국무부가 곧 발간할 인신매매보고서(TIP)에서 대만의 등급을 하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노동정의·권리포럼(GLJ-ILRF)과 그린피스 대만 지부는 수산물작업그룹(SWG, 수산 공급망 관련 인권·노동·환경 단체의 글로벌 연합)을 대표해 대만이 올 여름 발간될 연례 TIP에서 2등급(Tier-2) 국가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은 2021년 발표된 TIP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 충족한다”라는 이유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SWG는 대만 정부가 인신매매자 식별에 대한 구조적 실패, 현 이주노동자 고용 체계에 내재된 인신매매 악용 가능성, 구인업체 및 활동에 대한 규제 실패, 효과적이지 못한 인신매매 관련법, 지역·국제 NGO와의 비효율적이고 제한된 협력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 충족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등급으로 강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어업단체들은 이에 대해 공동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만 심해참치연승선주수출업자협회의 Tony Lin 과장은 “NGO의 이러한 행동이 어업 및 인권 보호의 개선이나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어업 및 인권 개선에 대한 대만 업계와 수산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묵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전달했다.

해당 성명에는 대만 어업단체들이 2017년부터 NGO와 정보를 청취·공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은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취득 추진, 어업개선프로젝트(FIP) 참여, 전자모니터링(EMS)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등 대만 어업회사들이 시행 중인 15개 조치를 근거로 지목했다. 또한 해당 성명은 기업들이 대만 국내외 바닷새 협회들이 추진하는 바닷새 개체수 경감 사업 대책 시범사업 등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대만 업계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EU가 불법 조업 및 노동 문제로 인해 대만 어업회사들을 제제한 점을 들어 업계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수립을 목표로 선원 본국 정부, 선원 단체, 채용기관, 연수원 등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업계는 업계와 감독당국, 비정부기구 간에 최초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의 대척점에 선 인권 옹호자가 되길 원하는 국가라는 점 때문에, TIP 2등급으로 강등당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대만은 모두 지난해 미국 노동부의 강제노동 관련 연례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4월 27일자



2021년 EU 참치 원어 수입, 12% 감소 비 EU산 수입 감소, EU산 수입 증가

EU 통계기구인 Eurostat에 따르면 EU 참치 가공국가의 2021년 참치 원어 수입량은 18만 5,875톤으로 2020년 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저치이다. 원어 평균 가격은 톤당 2,114 유로이다.

EU 블록 내에서 원어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숙 로인 수입량이 증가했다. 2021년 EU 참치캔 가공업자의 자숙 로인 수입량은 17만 6,007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둘째, 참치캔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EU의 참치캔 수출량(유럽 및 국제시장)이 2020년 대비 11% 감소했다.

2021년 EU 전체 원어 수입량의 약 73%, 13만 5,000톤이 스페인 공장으로 운송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만 7,536톤 감소했다.

한편, 이탈리아 수입량은 17% 감소(2만 7,536톤을), 포르투갈은 약 25% 증가(1만 7,619톤)했다.

원산지대로 봤을 때 비 EU 국적 어선에서 어획한 참치 원어의 EU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다. 반면, EU 국적 어선에서 어획한 참치의 수입량은 39% 증가했다.

EU 외 원산지 중 세이셸산이 2020년 대비 33% 증가한 2만 3,294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엘살바도르(17% 증가), 멕시코(3% 감소), 과테말라(9% 감소), 파나마(29% 증가), 퀴라소(22% 감소) 순이었다.

필리핀산의 2020년 수출량은 2만 148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1년에 85% 감소했다. 이는 필리핀 회사들이 필리핀이나 파푸아뉴기니 소재 자체 공장에서 직접 가공했기 때문일 수 있다. 2021년에 필리핀자숙 로인과 참치캔의 EU 수출량이 증가해 이를 입증한다.

한국산 수출량은 8,438톤으로 33% 감소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4월 27일자

EU Imports Of Whole Rounds Lowest In Five Years

EU: Import Of Frozen W/R Tuna In M/T, CFR Value Per 1 M/T In EUR In Full Year
Divided Into Major Origin

	2019		2020		2021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EXTRA IMPORT	176,359	2,115 €	182,315	2,044 €	145,306	2,033 €	-20%	-1%
Seychelles	17,325	1,832 €	17,541	1,652 €	23,294	1,700 €	33%	3%
Mexico	18,964	2,598 €	14,669	2,348 €	14,204	2,546 €	-3%	8%
El Salvador	16,779	1,517 €	13,549	1,543 €	15,850	1,674 €	17%	9%
Guatemala	12,224	1,598 €	12,801	1,466 €	11,691	1,607 €	-9%	10%
Curaçao	15,168	1,478 €	11,515	1,498 €	8,952	1,592 €	-22%	6%
Philippines	8,104	2,330 €	20,148	2,295 €	2,967	2,080 €	-85%	-9%
Senegal	12,537	2,004 €	9,044	1,814 €	5,072	1,706 €	-44%	-6%
Panama	8,753	1,857 €	7,251	1,710 €	9,341	1,824 €	29%	7%
China	8,171	2,489 €	11,368	2,235 €	5,252	2,518 €	-54%	13%
Cape Verde	10,819	1,746 €	10,326	1,713 €	3,190	1,983 €	-69%	16%
Others	47,514	2,634 €	54,104	2,479 €	45,494	2,387 €	-16%	-4%
INTRA IMPORT	49,597	2,490 €	29,210	2,480 €	40,569	2,405 €	39%	-3%
Spain	18,113	2,773 €	15,143	2,387 €	23,244	2,411 €	53%	1%
France	25,637	1,947 €	9,515	1,912 €	11,945	1,982 €	26%	4%
Portugal	3,882	3,105 €	1,738	2,551 €	3,758	2,230 €	116%	-13%
NL	1,346	4,670 €	710	5,054 €	619	5,735 €	-13%	13%
Italy	87	16,962 €	945	5,016 €	97	5,265 €	-90%	5%
Others	531	6,704 €	1,159	4,595 €	906	5,989 €	-22%	30%
Grand Total	225,956	2,198 €	211,526	2,104 €	185,875	2,114 €	-12%	0%

Source: Eurostat data

Powered by Atuna Analyst



2021년 EU 가다랑어 원어 수입 5만 4,718톤 2020년 대비 30% 증가

2021년 EU의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2020년 대비 30% 증가한 5만 4,718톤을 기록했다. 2019~202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인 후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 5년간 최고치는 2018년 6만 2,572톤이다.

EU는 2021년 상업용 참치 원어를 총 17만 5,875톤 수입했으며, 가다랑어는 이 중 29%를 차지했다. Atuna의 분석에 따르면 EU는 EU 국적선으로부터

더 많은 참치를 수입했으며, 수입량을 8,671톤 늘렸다. EU 선단이 어획한 참치의 평균 단가는 톤당 1,364 유로로, EU 외에서 수입된 참치보다 약 108 유로 더 고가였다.

한국산은 수입량이 2,055톤으로 44%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1,289 유로로 10%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2일자

EU 황다랑어 원어 수입 23% 감소 참치캔 원어 가다랑어로 전환

2021년 EU의 황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10만 3,980톤으로 2020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EU의 황다랑어 수입량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황다랑어 수입 감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EU 참치캔 원료가 황다랑어에서 가다랑어로 전환되고 있다. 2021년 가다랑어 수입은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둘째, 인도양에서 황다랑어를 타겟으로 조업하는 몇몇 선단(EU, 세이셸, 중국 국적)이 IOTC에서 자원 보존을 위해 총 어획량을 감소시킨 영향으로 쿼터에 제한을 받았다.

셋째, 증서부태평양에서 대형 및 소형 황다랑어

조업 상황은 지난해부터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필리핀(-85%), 중국(-58%), 한국(-46%)과 같은 아시아 선단의 EU 황다랑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원산지대로 보면 EU산의 수입량은 68% 증가한 반면, 비 EU산의 수입량은 32% 감소했다. 톤당 평균 가격은 EU산이 3,045 유로, 비 EU산이 2,322 유로였다. 스페인산이 3,593 유로로 가장 높았고 세네갈산이 1,958 유로로 가장 낮았다.

한국산 수입량은 5,970톤으로 46% 감소했으며 수입금액은 2,315 유로로 1%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5일자



EU 참치캔 가공업자 날개다랑어 수요 5년 내 최저 수입량 11% 감소

EU 가공업체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의 날개다랑어 원어를 수입했다. EU의 2021년 날개다랑어 냉동 원어 수입량은 2020년 대비 11% 감소한 1만 2,888톤으로 총 냉동 참치원어 수입량의 약 7%를 차지했다. 타 어종의 수입 비중은 황다랑어 56%(지난해 대비 23% 감소), 가다랑어 29%(지난해 대비 30% 증가), 눈다랑어 7%이다(8% 감소).

2021년 수입 가격은 CFR 기준 톤당 2,950 유로로 2020년 대비 200 유로 낮아졌다.

2021년 비 EU산 수입량은 2020년 대비 2% 감소했으며 일부 원산지의 경우 크게 감소했다. 스페인산이 44%, 포르투갈산이 63% 감소했다.

한편, 2021년 눈다랑어 수입량은 1만 3,085톤이었다. 세이셸산은 31% 증가한 2,596톤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스페인산은 40% 증가한 2,508톤이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9일자

유럽 참치 수입업자, 달러 강세로 원가 부담 달러 수출국 유럽 시장 경쟁력 약화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은 지난해 5월 10일 0.82 유로에서 올해 5월 11일 현재 0.95 달러로 상승했다. 따라서 유럽 참치캔 수입업자들은 에콰도르, 필리핀, PNG, 태국산 참치캔에 대해 16% 더 많은 비용을 유로로 지불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들은 환율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연료 및 운임 상승 등으로 참치캔 원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은 증가된 비용을 소매가격,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참치가 너무 비싸진다면 소비자 수요가 감소해 수입업자의 구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망을 위협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히 달러로 판매하는 가공업자는 유럽에서의 사업을 잃을 수 있다.

화폐단위로 USD를 사용하는 에콰도르는 지난 2년 동안 참치캔 수출량이 25% 감소했다. EU의 지난해 참치캔 수입량을 감안할 때 구매자는 세이셸, 가나와 같은 유로 무역국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EU 내 국가에서의 수입을 늘렸다.

태국 바트는 지난해 5월 10일 31.08 바트/달러에서 현재 34.55 바트/달러로 11% 상승했다. 태국의 가장 큰 참치캔 수출 시장은 미국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증가했다.

호주 달러는 12.5% 상승, 이집트 파운드르는 18% 상승해 수입 부담이 증가했다.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각각 19.5% 10%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10일자



에콰도르 참치캔·자숙로인 수출량 3% 증가

2018년 이후 수출량 증가 추세

에콰도르 전국수산업협회(CNP)에 따르면 2021년 에콰도르 참치캔·자숙 로인 수출량은 27만 6,886톤으로 2020년 대비 약 9,000톤 증가했다. 수출액은 FOB 기준 11억 8,000만 달러로 9% 증가했다.

참치는 에콰도르 어류 수출량의 약 51%, 수출액의 약 66%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에콰도르 가공업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운송한 참치 제품의 규모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출액은 2020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반등했다.

수출량은 참치캔 20만 3,082톤, 자숙 로인 5만 5,300톤, 기타 1만 7,730톤을 기록했다.

참치캔은 예년과 같이 EU가 주 수출국으로 수출

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3억 6,100만 달러로 안정적이었다. 자숙 로인은 대부분 EU로 운송되었고 높은 수요로 인해 수출량이 19%, 수출액이 28% 상승했다.

EU 수입 데이터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참치캔 EU 수출량은 2년 동안 4분의 1 가량 감소했다. 반면, 영국 수출량은 24% 증가했다. 영국 참치 시장에서 에콰도르의 점유율은 브렉시트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21년 대미 수출량은 7% 감소, 수출액은 2.33% 증가했다. 참치캔 수출은 증가, 자숙 로인 수출은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5일자

이탈리아 참치캔 수입량 증가했지만 낮은 수준

자국 참치캔 산업 성장, 코로나19가 원인

2021년 이탈리아의 참치캔 수입량은 7만 7,502톤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과 비교하면 15% 감소한 수치로 평년보다 훨씬 낮다. 이탈리아 국내 참치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숙로인 수요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해준다.

2021년 코로나19로 식품 서비스 부문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탈리아 시장에서는 황다랑어 참치캔이 지배적

로 수입 가격이 높다.

수출국으로 보면 스페인이 52%로 압도적이었다. 코트디부아르는 2020년에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고 2021년에 더 감소했다. 콜롬비아도 코트디부아르와 비슷했다.

세이셸과 모리셔스는 수출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에콰도르는 2020년에 줄어든 물량을 일부 회복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13일자 2022년 4월 14일자



타이유니온, 인도 합작 기업 설립

인도에 식품 첨가물 판매 목적

타이유니온 그룹이 인도 시장 식품 첨가물 판매 사업을 위해 합작 기업 'RBS-TU Food Ingredients'를 설립했다. 해당 기업은 타이유니온과 태국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인 R&B Food Supply, 인도 수산 가공업체 Avanti 그룹의 관련 업체인 Srinivasa Cystine(SCPL)사가 합동으로 설립했다. 해당 합작 기업은 인도에 향료, 코팅제 등 고품질 식품 첨가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3사는 지난 2월 하순 합작기업 설립 관련 합의서에 조인했고, 4월 26일 정식으로 설립했다. 자본금은 1억 루피(약 16억 5,000만원)이며, 합의대로 RBF가 지분 51%, SCPL이 30%, 타이유니온이 19%를 소유한다. 이사회에는 RBF 2인, SCPL 2인, 타이유니온 1인이 이사로 취임했으며, 향후 RBF에서 1인이 더 취임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5월 11일자



타이유니온, 오메가-3 연구소 개방

오메가-3 연구 협업 관심 기업 대상

타이유니온 산하의 Thai Union Ingredients(이하 TUI)사가 소아 영양, 식이보조 식품, 영양 식품 등의 목적으로 오메가-3 연구 협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오메가-3 연구 시설인 Omega-3 Centre of Excellence(이하 O3C)를 개방했다.

방콕 부근에 위치한 225m²의 시설은 TUI 자회사 및 독일 Rostock에 위치한 참치 오일 정제공장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오메가-3 오일의 건강상 이점과 관련된 제품 개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O3C는 참치 오일 및 정제유를 함유한 UniQ DHA 브랜드의 오일 공정 최적화를 지원했다. 해당 연구소는 현재 타 어류 및 조류 오일을 포함한 추가적인 오메가-3 응용 분야로 범위를 확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5월 6일자



아르헨티나, 2월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 46% 감소

kg당 수출 가격 2.04 달러

올해 2월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은 지난해 동월 2만 2,850톤 대비 46% 감소한 1만 2,554톤을 기록했다. 수출금액은 지난해 동월 4,590만 달러 대비 45% 감소한 2,560만 달러이다. kg당 수출 가격은 2.04 달러로 전월 대비 0.25 달러 하락했다.

민대구의 경우 수출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12% 감소했지만 수출금액은 3% 증가했다. kg당 수출 가격은 2.80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kg 당 2.93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르헨티나의 수산물 총 수출량은 3만 6,276톤으

로 지난해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수출 금액은 1억 3,830만 달러로 11%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6,289톤, 1,27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1만 1,398톤, 2,190달러 대비 크게 감소했다.

2위 스페인은 지난해 동기 대비 4,262톤, 2,540만 달러로 각각 20%, 2% 감소했다.

그 다음 브라질은 2,578톤, 850만 달러로 수량은 19% 감소했지만 금액은 12% 증가했다. 태국은 2,397톤, 950만 달러로 각각 31%, 29% 감소했다. 중국은 2,372톤, 950만 달러로 3%, 19% 증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5월 4일자



아르헨티나 선주협회-오징어 구매업체 간 MOU 체결

FIP 통해 MSC 인증 취득이 목표

아르헨티나 채낚기어선선주협회(CAP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수산엑스포에서 일렉스 오징어 어업에 대한 어업개선프로젝트(FIP) 공동 협력을 위해 글로벌 오징어 구매자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lfrío, Cabomar, Congalsa, Panapesca USA, Sysco France, Lund's Fisheries 등 6개 기업이 해당 MOU에 서명했다.

CAPA는 아르헨티나 EEZ에서 조업하는 선단을 대변하는 협회로, 총 32개의 회원사와 채낚기 어선 66척이 속해 있다. 이들은 또한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CAPA는 해당 FIP의 목표가 유럽·미국 소매업자들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정보 공개 플랫폼 '지속가능한 수산 파

트너십(SFP)'이 해당 FIP의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FIP 참가자들은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사전 평가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 전문가와 함께 5개년 실행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연말까지 FIP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다. 개선 계획은 CAPA가 주도하며, 해당 수역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Juan Redini CAPA 회장은 "우리는 FIP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오징어를 남대서양의 다른 오징어들과 차별화하고, 아직 우리가 진입하지 못한 모든 슈퍼마켓의 소매 시스템에 진입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장이 더욱 지속가능해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4월 27일자

일렉스오징어 13주차 가격 톤당 3,669 달러

2020년 대비 대폭 하락

Undercurrent News에 따르면 일렉스오징어와 살오징어 가격이 2022년 13주차에 하락했다.

중국 원양 선단이 주로 어획하는 일렉스오징어 대형(200~300g) 냉동 블록의 중국 항구 가격은 톤당 23,333 위안(약 3,699 달러)으로, 3월 평균가 대비 약 166 위안(약 26 달러) 하락했다.

지난해 남서부 대서양의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오징어 가격은 현재까지 2년 전 대비 훨씬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중국 항구 200~300g 일렉스오징어 가격은

톤당 3만 5,700 위안이었다.

한편 동해와 동해 근방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 가격은 2022년 초 대폭 상승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3주차 200~300g 살오징어 원어의 중국 항구 가격은 톤당 약 2만 4,667 위안으로, 9주차 가격인 톤당 2만 5,250 위안 대비 하락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최고치였던 톤당 3만 1,000 위안에 비하면 크게 하락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13일자



러시아 명태 어업 A시즌 종료

어획량 약 79만톤...2% 증가

러시아 포란 명태 어업 A시즌이 지난 4월 10일부로 종료되었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에 따르면 어획량은 79만 3,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2% 증가했다. TAC 소화율은 73.5%로 지난해 (65.7%) 대비 증가했다.

조업구역별로 살펴보면, 북부 오호츠크가 30만 3,100톤(지난해 동기 대비 6% 감소), 서캄차카 27만 3,100톤(38% 증가), 캄차카-쿠릴 21만 6,800톤(16% 감소)로, 서캄차카에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A시즌 어업은 1월부터 시작되었다. 성어기에는 대형 트롤선, 중형 트롤선을 합쳐 100척 이상이 조업에 착수했다.

한편, 일본-러시아 간 경계왕래성 어종으로 평가 받는 동사할린 명태 어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동사할린에서 일시적으로 조업이 행해졌으나 이후 해수의 영향으로 중단되었고, 4월 4일부터 재개되어 누계 어획량 4,600톤을 기록 중이다.

러시아 어업자의 오츠크해 춘계 청어 어획량은 10일 기준 13만 6,3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4월 4일 기준 대형 트롤선 13~16척, 중형선 3~7척이 조업했으며, 1일 1척당 평균 어획량은 대형선 151톤, 중형선 56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시아명태어업인협회(PCA)에 따르면 명태 필렛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36%로 2021년 24%, 2020년 17% 대비 증가했다.

Alexey Buglak PCA 회장은 이러한 수치가 미국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해상 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하려는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Buglak은 부가가치 생산량 증가가 필렛 생산라인을 갖춘 어선의 증가(지난해 30척에서 올해 39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렛 블록뿐만 아니라 민스 블록 생산량도 2배로 증가했고, 연육 생산량도 지난해 300톤이었으나 올해 5,300톤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공하지 않은 냉동 명태 생산량이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청은 최근 회의에서 전쟁에도 불구하고 어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한국 등도 제품 반입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의 1월~4월 11일 총 어획량은 146만 4,38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연해주 지역 냉동 저장고의 사용률은 약 51%이다. 극동 지방에서 중부, 서부로 이동하는 수산물 제품이 최근 1주 사이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운송에 의한 공급 비중이 높다. 제품 가격의 경우, 청어와 명태의 도소매가가 일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외 주요 냉동어종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4월 14일자, 2022년 4월 19일자, Intrafish, 2022년 4월 18일자



2022년 4월 18일 러시아 어획량 157만톤

지난해 동기 대비 3.1% 증가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4월 18일까지 러시아의 어획량은 총 157만톤으로, 2021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극동 조업구역 어획량은 명태 90만 4,200톤, 청어 17만 9,400톤, 대구 5만 1,800톤을 기록했다. 극동 지역 어선의 총 어획량은 2021년 대비 7.9% 증가한 122만톤이다.

북부 조업구역 어획량은 15만 2,000톤이며, 이 중 대구 9만 1,700마리, 해덕 2만 4,200마리 등 총 15만 2,000톤을 기록했다.

서부 조업구역에서는 sprat(청어과의 소형 담수어) 2만 1,500톤과 9,700톤의 발트해 청어를 포함, 총 3만 2,600톤이 어획되었다.

아조프-흑해 조업구역의 총 어획량은 1만 4,800톤이며, 이 중 멸치 어획량이 1만 1,600톤이었다. 볼가-카스피 조업구역의 어획량은 2만 6,100톤이며, 이 중 1만 7,900톤이 sprat이다.

러시아 선단의 외국 EEZ와 공해 어획량은 11만 5,000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4월 21일자

유럽 가공업체, “러시아 명태 대체 불가”

수입 규제 시 유럽 가공업체 큰 타격

유럽 최대 흰살 생선 가공업체 중 하나인 Greenland Seafood는 EU가 러시아산 명태 수입을 금지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Greenland Seafood는 독일과 프랑스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Greenland Seafood의 Patrick Barinet 상무는 원재료의 약 70%가 알래스카 명태이며 대부분이 중국산 더블프로즌 제품(러시아에서 냉동 상태로 중국에 운송되어 가공되어 2회 냉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arinet 상무는 현재 Greenland Seafood를 비롯한 흰살 생선 가공업체가 러시아

수산물 조달을 평소와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Barinet 상무는 ‘러시아산 흰살생선 관세 35% 부과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한 영국의 경우 명태가 대구나 해덕대구 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EU,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명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북대서양대구(saithe)나 대구로 간단히 전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명태로의 전환에 대해서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팡가시우스도 가격·소비자 평판·유통 물량 문제로 명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5월 4일자



B시즌 명태 PBO 톤당 5,000 달러 넘어설 가능성 제기

올해 세계 명태 공급량, 수요에 크게 못 미칠 수도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명태 PBO(가시 제거) 필렛 블록의 가격이 톤당 5,000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러시아 명태 생산 기업인 Hidrostroy의 미국-국제 부문 판매이사인 Torunn Halhjem은 명태 수요를 2019년 기준인 55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올해 시장에서 명태 블록이 약 10만톤 부족할 수도 있으며, PBO 가격 톤당 5,000 달러 이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1년 B시즌 PBO 가격은 톤당 3,850 달러였으나, 2022년 A시즌 가격은 톤당 4,450 달러로 2009년 A시즌 이후 최고가이다.

Halhjem은 중국, 러시아, 미국의 필렛 공급량이 2021년 47만 5,000톤이었으나 2022년 45만

2,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Halhjem은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의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의 필렛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14만 2,000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총 7만 1,000톤의 필렛을 생산했으며, 이 중 6만톤이 PBO, 1만톤이 PBI(가시 미제거), 1,000톤이 딥스킨(껍질, 지방층 제거)이다.

Halhjem은 알래스카의 2022년 필렛 생산량이 12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국립해양수산물청(NMFS) 자료에 따르면 A시즌(4월 10일)까지의 미국 필렛 생산량은 5만 6,000톤이며, 이 중 3만 2,000톤이 PBO 블록, 2만톤이 딥스킨이다.

* 자료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26일자

日, 미국산 명태 연육 수입가격 최고 수준

상급 kg당 70 엔, 하급 kg당 50 엔 인상

일본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어육 제품 등의 주 원료가 되는 미국산 명태 냉동 연육(surimi)의 수입 가격이 봄 이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으로의 소액 수요자 인도 가격 인상 폭은 상급품 kg당 60~70 엔, 하급품 kg당 40~50 엔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연육 생산 감소 및 세계적 연육 수요 증가, 인건비와 해상 운송비, 에너지 가격 등 원가 상승, 엔저 등으로 인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종료된 미국 A시즌 연육 생산량은 합계 7만 1,0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육 제품을 제조하는 프랑스, 리투아니아, 한국, 태국, 미국 등의 시장은 어육 수요 상승으로 인해 가격 협상이 일본보다 빨리 타결되어 해당 시장에 일본보다 먼저 수출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4월 20일자



알래스카 명태 부가가치 제품 생산 증가

딥스킨 필렛 8.8%, PBO 필렛 25% 증가

알래스카 더치 하버(Dutch Harbor)에 위치한 한 가공공장 임원에 따르면 어획물 사이즈 증가, 전일제 노동, 대규모 코로나19 폐쇄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힘입어 주요 식품 업체에 공급되는 명태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이 증가했다.

올해 어획된 개체들은 700~800g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어획물의 개체당 크기가 이보다 작았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은 식품 서비스 업체들이 원하는 부가가치 필렛 대신 연육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주요 어업-가공업자가 이미 A시즌 조업을 마감하는 등 올해 들어 현재까지의 어획량도 지난해보다 나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2일까지 딥스킨(껍질·지방층 제거) 필렛 생산

량은 1만 9,707톤으로 지난해 대비 8.8% 증가했고, PBO(가시 제거) 필렛 생산량은 3만 3,856톤으로 약 25% 증가했다.

알래스카에서 명태 트롤선을 운영하는 어업회사의 한 임원에 따르면 최근 PBO의 가격은 톤당 4,500 달러 선이며 5,000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딥스킨 블록은 PBO 필렛 가격보다도 20%나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몇몇 알래스카 명태 생산업체 측은 국제 수요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Sugiyo USA의 사장 겸 CEO인 Susan Ruiz에 따르면 연육 가격은 지난해 대비 22% 상승했다.

* 자료 출처: Intrafish, 2022년 4월 14일자

日, 러 제재 피해 수산가공업자 보조금 예산 편성

원료 확보 어려워진 중소중견 업체 지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산 가공업자를 지원하는 '수산업 원자재 조달 원활화 긴급대책사업'에 50억 1,000만 엔을 투입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가공 원료 조달처 국가 또는 원재료 어종을 변경하는 중소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운송비·가공기기 도입 비용, 상품개발비, 선전비, 판촉비 등을 2/3(중견기업의 경우 1/2), 1건당 최대

5,500만 엔까지 보조한다. 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올해까지,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보조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 향후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불확실한 중소 또는 중견 수산 가공업자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온 사업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정세에 좌우될 수 있는 어종을 반입해 온 사업자 전반이 대상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5월 2일자



일부 기업, 러시아 보이콧에 난색

보이콧 기업 증가 추세 다소 약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세계 정부, 민간 기업, NGO는 전례를 찾기 힘든 보이콧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 러시아산 수산물 구매 중단을 발표하는 기업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양식사료 제조업체의 경우, Nutreco와 SHV(Skretting의 모기업)는 러시아와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Skretting은 연어 사료 문제로 인해 해당 결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흰살생선, 특히 대서양대구·해덕대구·명태 구매자들에게 러시아 시장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유럽 주요 냉동어류 가공회사, 특히 Young's Seafood, Nomad Food(Birds Eye와 Iglo 냉동식품의 모기업), 독일 어류가공회사인 Frosta 등은 모

두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양의 원료를 공급받는다.

Young's와 Frosta는 공급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Nomad는 구매 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4분기 발표에서 타 협력업체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훨씬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세계 최대 연육 생산업체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Viciunai는 여론의 압박 끝에 수개월 내로 러시아에서의 사업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냉동 수산물 가공업체인 Espersen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했고, 맥도날드는 모든 지점을 폐쇄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4월 19일자

17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

극동 견고, 북서부 및 중부 약세

17주차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은 극동 지역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인 반면, 북서부 및 중부 지역에서 약세를 보였다.

러시아 루블화가 최근 저점에서 계속 반등함에 따라 미국 달러 기준 가격은 상승했다.

극동 지역 핑크연어, 명태, 태평양 청어, 태평양 대구 가격은 지난주 각각 kg당 170-185, 90-120, 60-85, 185-230 루블 대비 이번주 각각 kg당 190, 95-120, 65-85, 190-230 루블로 비슷하거나 일부 상승했다.

북서부 지역의 경우, 대구, 연어, 청어 가격은 지난주 각각 kg당 220-245, 175-220, 80-125 루블에서 이번주 각각 kg당 215-245, 170-220, 70-120 루블로 하락했다.

중부 지역의 경우, 연어, 명태, 대서양고등어 가격은 지난주 각각 kg당 165-210, 105-125, 150-185 루블이었으나 이번주 각각 kg당 155-205, 105-120, 145-185 루블로 하락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5월 5일자



노르웨이,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조치, 어선은 제외 상업·연구 목적 정박 가능

노르웨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신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적 선박의 노르웨이 항구 정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어선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업 및 연구 목적으로 정상적 정박이 가능하다.

러시아 어선을 입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스발바르 조약에 근거한 어종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적 관리, 수색구조 협력, 노르웨이의 국제법상 의무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어류 구매업자인 Stale Nilsen은 이러한 결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노르웨이-러시아 간 어업 협력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며, “노르웨이 항구가 러시아 어선에 폐쇄된다면 양국 간 어업협력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5월 7일 발효되는 노르웨이의 금지 조치는 상업적 목적으로 국제 항해하는 500톤급 초과 선박, 요트, 그리고 일부 유람선 및 레크리에이션용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4월 28일자

페로제도, 러시아 제재 승인...어업 미적용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됐으나 어선 예외

페로제도 의회가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페로제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이들의 자체 제재가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제재와 유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페로제도는 EU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EU가 시행하는 제재는 페로제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이번 신규 법안으로 제재 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페로제도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으나, 노르웨이의 제재 조치와 마찬가지로

어선의 입항은 허용된다.

페로제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수십 년 간 어업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어선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협력에는 세계 최대 규모 어업인 북대서양 어업 자원의 공동 관리가 포함된다.

EU 부어(pelagic) 업계는 페로 제도가 러시아 선단에 러시아-영국 사이에 위치한 특별 조업구역에서의 청대구(blue whiting) 조업 허가를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5월 10일자



러시아 수산업계, 투자 쿼터 프로그램 중단 요구

미중단시 수십억 달러 손실 발생할 수도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와 전러시아어업협회(VARPE)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국제 제재를 언급하며, 투자 쿼터 프로그램이 이러한 상황 하에 진행된다면 업계에 재정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루블화 가치 폭락과 시장 상황으로 인해, PCA는 프로그램 2단계를 진행할 경우 극동 명태·청어 어업자들의 수익이 618억 6,000만 루블(약 7억 7,680만 달러)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VARPE는 제재 및 물류 대란을 이유로 프로그램 1단계에서 할당된 쿼터가 만료되는 2033년까지 2단계 프로그램 시작을 연기하도록 러시아 수산청에 요구했다.

VARPE 측은 국제 협정에 따라 협상되는 일부 어획 쿼터가 현재 위험한 상태이며, 여기에 국제 제재로 인해 환율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들의 불안정성이 매우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VARPE 회장

German Zverev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Zverev는 제재 및 환율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투자 쿼터 프로그램 2단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이 2033년까지 최소 4,710억 루블(약 59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VARPE는 명태·청어 중소기업의 손실을 223억 루블, 게 어업회사의 손실을 1,912억 루블로 추산했다.

Zverev는 현재까지 1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쿼터를 받은 기업들의 총 부채는 이미 53.4% 증가한 4,000억 루블에 달했다고 말했다.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Ilya Shestakov 러시아 수산청장은 수산청의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며, 투자 쿼터 프로그램과 신규 경제 관련 법안을 계속 준비할 계획이라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4월 21일자

제30회 러-중 어업위원회 개최

中 선단 베링해 명태 어업 등 논의

러시아 수산청은 2022년 4월 21일 제30회 러-중 어업위원회가 개최 중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수면 어업관리, 단속 활동, 무역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중국 선단이 베링해의 러시아 EEZ에서 명태를 유상으로 어획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가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 2021년 해당 분야

협력에 대한 리뷰 및 2022년 계획이 논의되었다.

러시아 수산청은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방적인 국제 제재 조치를 지지하지 않으며,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이중적 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특히 지적했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4월 22일자



日 2022년 1월 공치 재고량 6,987톤

9개월 연속 1만톤 미만 기록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냉동수산물 재고량 (2022년 1월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냉동창고

의 냉동 공치 1월말 시점 재고는 6,987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단위 : 톤)

	월말 재고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	6,987					
2021	8,749	11,398	11,028	10,236	9,559	7,804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2021	6,977	9,193	5,759	5,577	7,265	6,986
2020	7,270	6,900	6,089	6,994	8,987	9,248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4월 21일자

日 공해 공치조업 3년 연속 미 실시

수지타산 문제, 국제 정세 불안 등 원인

일본 홋카이도 근해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예년 5~7월 실시되는 일본 공치 봉수망어업이 3년 연속으로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계속되는 홍어, 계속해서 멀어지는 어장,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가 원인이

다.

어업자들 사이에서 러시아 수역 주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는 점 또한 공해 출어를 실시하지 않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관측된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4월 18일자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1,198.5 달러

2분기 브렌트유 배럴당 평균 108 달러 예측

현재 유가는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 가스관 가동 중단,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 논의 지속, 미국 석유제품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5월 9일 기준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세계 평균 톤당 1,273.5 달러, 세계 20개 항구 평균 1,290.5 달러, 싱가포르 톤당 1,198.5 달러를 기록하며 연일 치솟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브렌트유 가격을 올해 2분기에 배럴당 평균 108 달러, 하반기에 102 달러로 예측하며 이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5월 11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107.51 달러, 두바이유 가격은 104.56 달러, WTI 가격은 105.71 달러이다.

<글로벌 20개 항구 MGO 평균(회색),
싱가포르 MGO(적색) 벙커 가격>



* 그래프 출처: Ship&Bunker

<두바이유 가격>



* 그래프 출처: 네이버



美 4월 신선 수산물 매출 감소

인플레이션 영향...냉동·상온보관 제품 매출 증가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IRI와 210 Analytic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계속되는 수산물 가격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로 인해 미국의 4월 신선 수산물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 매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8%,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은 9.6% 증가했다.

4월 신선 수산물 단가는 개(단위)당 평균 13.5% 상승했다. 3월 상승치(12.1%)보다도 더욱 높다. IRI와 210 Analytics에 따르면, 신선 어류 평균 가격은 개당 10 달러 이상으로 20.9%나 급등했고, 신선 조개류 가격은 2.3% 상승했다. 이로 인해 4월 신선 수산물 매출은 11.8% 급감한 4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10 Analytics의 Anne-Marie Roerink 대표에 따르면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매출 수량은 2019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Roerink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가격 상승, 특히 게, 대구, 알래스카 명태 등의 가격 상승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냉동 수산물 매출은 지난해 대비 2.8% 증가했다. 냉동 어류 매출은 7.9%, 냉동 새우 원어 매출은 3.2% 증가했다. 그러나 조리된 냉동 수산물 매출은 6.2% 감소했다.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은 9.6% 증가한 2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량은 약 6.5% 증가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5월 10일자

EU 의회, MPA 저충트롤어업 금지 개정안 채택

EJF,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 논평

환경정의재단(EJF)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의회의원들(MEP)이 모든 해양보호구역(MPA)에서의 '채굴 산업 활동' 금지를 EU에 촉구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채굴 산업 활동'에는 저충트롤어업과 심해 채굴 및 화석 연료 시추가 포함된다.

EJF는 이 투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시의적절하며 "EU MPA에서 파괴적인 어업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

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저인망어업연맹(EBFA)회장 Ivan Lopez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기초가 되는 과학 연구의 일부가 과학적 엄정성 부족으로 인해 철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EU가 기초과학이나 필요한 정치적 논의 없이 NGO의 감정적 캠페인에 의해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5월 5일자



中 중산층, 돼지고기 대신 수산물 소비 증가 인구 구조 변화, 중산층 증가 등 원인

중국의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981년 2021년 말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전국 돼지 사육두수 회복과 함께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40kg 미만으로 감소했다.

Bu Rui Ke는 중국의 고령화가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닭고기, 수산물로 수요가 이동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건강한 단백질에 대한 고령 소비자층과 도시 청년층의 수요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2021년 수산물 수입량은 가공품, 간접소비제품 등을 합쳐 총 571만톤으로 2020년 대비 0.72% 증가했다.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5.62% 하락한 359만톤을 기록했다.

중국이 수입한 수산물의 상당수는 가공되어 재수출되었기 때문에 모두 중국에서 소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품목은 내수용 부가가치 제품이었다. 중국의 수산물 가격은 올해 1월에 2021년 동월 대비 8.8%, 2월 4.9% 상승한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인플루엔자 유행 영향으로 41.6% 폭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수산물 수입량은 1992년 103만톤에서 2018년 590만톤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 68억 위안(10억 2,000만 달러)에서 802억 위안(120억 달러)으로 대폭 성장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4월 18일자

日 3월 가계조사, 어패류 지출 4% 감소 가구당 지출 약 6,038 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3월 가계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어패류 지출액은 약 6,038 엔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 감소했다. 이 중 신선 어패류 지출은 약 4% 감소했다.

어류 지출 중 정어리, 모듬회 등은 10% 증가했으나 가다랑어, 방어 등은 감소했다. 게 가격은 2.9배로 상승했으나 지출량은 68% 감소해 총 지출액은 11% 감소했다.

염장건조 어패류 지출은 2% 감소했다. 이 중 연

어는 수량이 6% 감소했으나 단가가 11% 상승해 총 지출은 5% 증가했다. 어육 제품 지출은 2% 증가했다. 냉동 조리식품 지출은 6% 증가했다. 외식 지출은 1% 증가했으나 초밥류 지출은 1% 감소했다.

식료품 총 지출은 1% 증가한 7만 9,982 엔이며, 집계 가구 수는 7,369 가구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5월 11일자



컨테이너 운임 다시 상승, 높은 수준 유지 예상

美 서안 항만 적체 다시 악화

아시아에서 북유럽까지의 현물 운임은 4월말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 단위)당 1만 835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Freightos Baltic Index에 따르면 이는 1월말 최고치보다 28%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에 기반을 둔 물류업체 CH Robinson은 컨테이너선 글로벌 해운 운임이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Robert Biesterfeld CEO는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코로나19 폐쇄로 인해 줄어든 미국으로의 수출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 정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록 해운 운임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 연안으로 가는 운임은 이번 주 FEU당 1만 5,552 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미국 동부 해안으로 가는 운임도 1만 7,148 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미국 오클랜드 소재 태평양상선협회(PMSA)에 따르면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두 항의 수입 컨테이너 평균 처리기간(dwell time)은 6.3일로 전달(5.8일)보다 0.3일 연장됐다. 2개월 만에 두 항만의 혼잡 기간이 다시 6일을 넘어서게 됐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5월 5일자,

코리아쉬핑가제트 2022년 5월 3일자

선원표준 ‘FISH’, 선망-트롤 3개 선단 감사 완료

알래스카 명태 선상가공선, PNG 선망선단 등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FISH(Fairness, Integrity, Safety, and Health) 선원 표준(Standard for Crew)은 자연산 어획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인된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체이다.

FISH는 4월 25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적의 알래스카 명태 어획-가공업자를 대표하는 협회인 선상가공업자협회(APA), Nueva Pescanova 그룹의 나미비아 계열사인 NovaNam, PNG 어업협회

(FIA-PNG) 등의 3개 선단이 최초로 인증 감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FISH의 감사에는 선박 현장 검수, 선원 직접 면담, 정책 및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된다. APA에 대한 감사에는 14척의 선상 가공선, Novanam에 대한 감사에는 9척의 트롤선, FIA-PNG에 대한 감사에는 32척의 선망선이 포함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4월 25일자



수산물 대체식품 투자, 2021년에 2배로 증가

식물 기반·세포 기반·발효 기반 등

비영리단체 Good Food Institute(GF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체 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는 총 1억 7,500만 달러로, 2020년 투자 금액인 9,100만 달러 대비 92% 증가했다.

총 24건의 투자가 성사되었으며, 9건의 거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해당 부문에 20건의 투자가 성사되었다.

가장 크게 투자를 받은 기업은 세포 기반 수산물 기업인 BlueNalu이다. 해당 기업은 2021년 1월 벤처 캐피털 투자자와 글로벌 수산 대기업 타이유니온이 주도한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켰다.

GFI는 현재 120개 이상의 기업이 대체 수산식품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GFI에 따

르면 이 중 90개 기업은 식물 기반 수산 대체식품 제조업체이다. 그러나 전체 투자금액 중 66%(약 1억 1,500만 달러)는 세포 기반 수산 대체식품 기업에 투자되었다.

GFI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대체 수산식품 산업은 식물 기반 제품이 지배적이었으나, 2021년에 출범한 대체 수산식품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9개사가 배양 수산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서는 Forsea Foods, Sea2Cell, Wanda Fish, E-FISHient Protein 등 지난해 4개의 배양 수산식품 기업이 신규 출범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4월 26일자

EU, 전쟁 피해 수산업자 2차 지원조치 제안

러시아 침공으로 조업 중단한 어업자 보상 등 포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피해를 입은 어업자 및 양식업자에 대한 두 번째 지원 조치 허가를 위해 유럽해양수산기금(EMFF)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EC 측은 해당 안이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전쟁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및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은 3월 25일 발표된 첫 번째 재정 지원안에 이은 것이다.

신규 대책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전통적 어업 활동의 안전이 위태로워져 조업을 중단해야

했던 어업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전쟁으로 인해 어업·양식 제품을 보존해야 했던 수산업자와 시장 혼란으로 인해 수입을 포기하거나 추가비용을 지불한 생산·가공업자에게 모두 보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해당 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의해 채택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4월 14일자



동해 바다

신 경 림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땃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때로 채찍질하면서





오징어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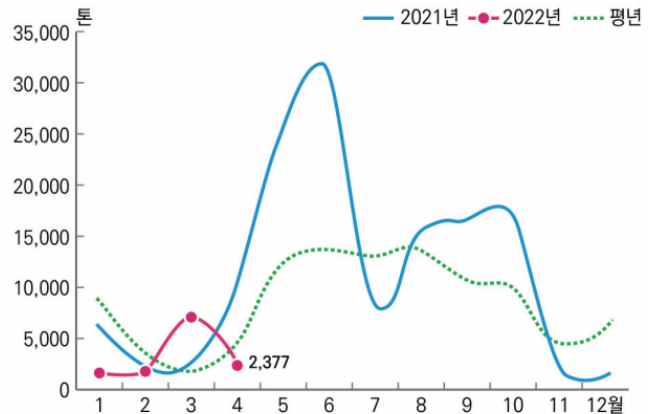
소비자가격 13% 상승, 수입 43% 증가

□ 생산동향(4월 오징어 생산량, 금어기 및 원양산 반입 감소로 전월 대비 66% 감소)

2022년 4월 오징어 생산량은 금어기 및 원양산 반입량 감소로 전월(6,957톤) 대비 65.8% 감소한 2,377톤이었다. 원양산 반입이 많았던 지난해(10,096톤)보다 76.5% 적었으며, 평년(4,996톤)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근해산 생산은 금어기가 시작되며 전월 대비 95.3% 감소한 25톤에 그쳤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경기남부수협이 7톤, 여수수협 6톤, 구룡포수협 5톤, 통영수협 2톤, 후포수협 1톤 등 수협별로 소량의 위판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반입량은 2,352톤으로 전월 뿐 아니라 지난해 및 평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2022년 4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만 2,483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에 비해 각각 40.6%, 36.7% 적었다.



주 : 2022년 4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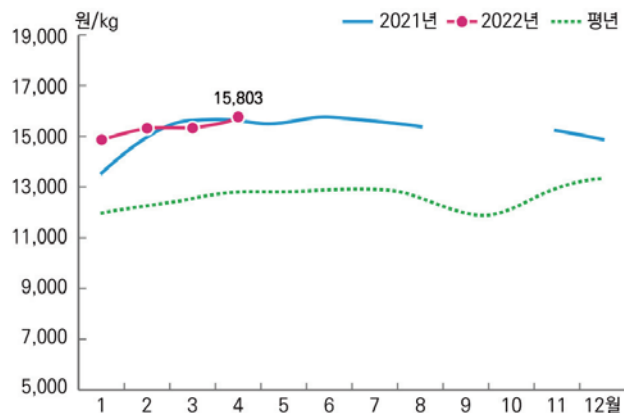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잠정치는 당 센터 추정 결과

□ 가격동향(4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강보합세인 kg당 15,803원)

4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생산이 줄었음에도 품질이 좋지 않아 전월 대비 10.0% 하락한 kg당 3,961원이었다. 지난해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44.5%, 42.9% 낮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연근해산 금어기로 전월 대비 2.8% 상승한 kg당 15,803 원이었다. 지난해 동월과 비슷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23.4% 높았다.

한편,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거의 없어 형성되지 않았다.



주 : 2022년 4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 수출입동향(4월 오징어 수입량, 페루산 수입 줄면서 전월 대비 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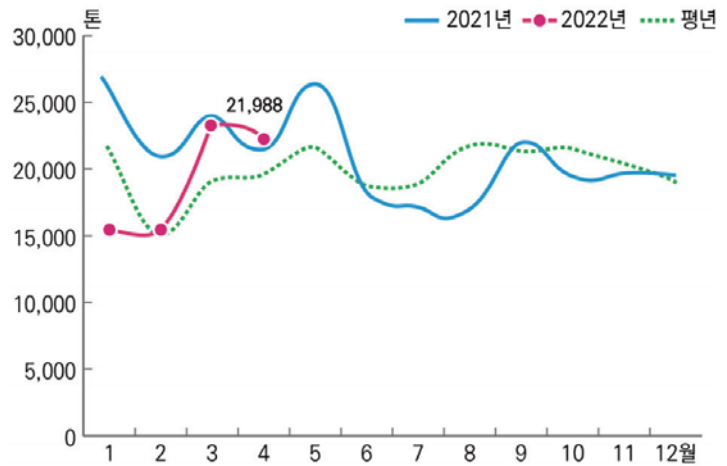
4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1,970톤) 대비 22.5% 증가한 2,413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60.2%, 118.8% 많았다.

수출량의 대부분은 냉동오징어(2,091톤)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723톤), 대만(99톤), 미국(81톤) 순으로, 상위 3개국 물량이 전체의 91.0%를 차지했다.

4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1,988톤으로 페루산 수입이 줄면서 전월(23,200톤) 대비 5.2%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페루산 수입량이 1만 1,17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산(8,228톤), 러시아산(573톤) 등의 순이었다.

4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평년(75,499톤)과 비슷한 7만 5,979톤으로, 지난해(92,659톤)에 비해서는 18.0%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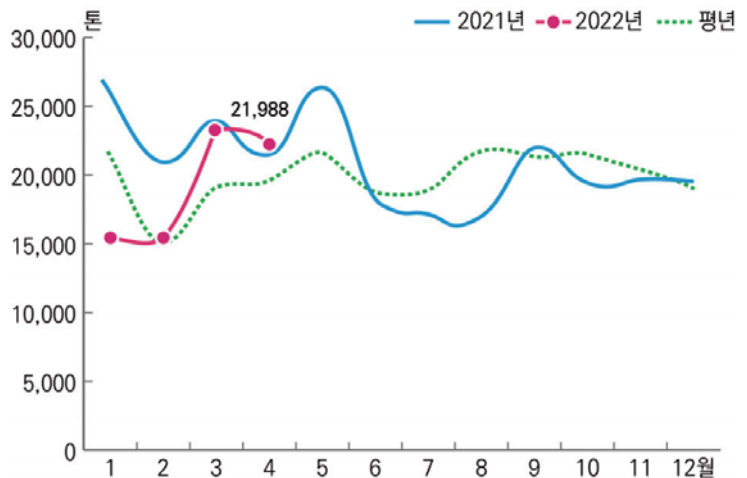


□ 재고동향(4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8% 감소한 5만 8,060톤)

4월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62,875톤) 대비 7.7% 감소한 5만 8,060톤이었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금어기로 생산이 거의 없어 전월 대비 16.8% 감소했다.

원양산 또한 반입이 줄면서 전월 대비 재고량이 3.2% 감소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관측 5월호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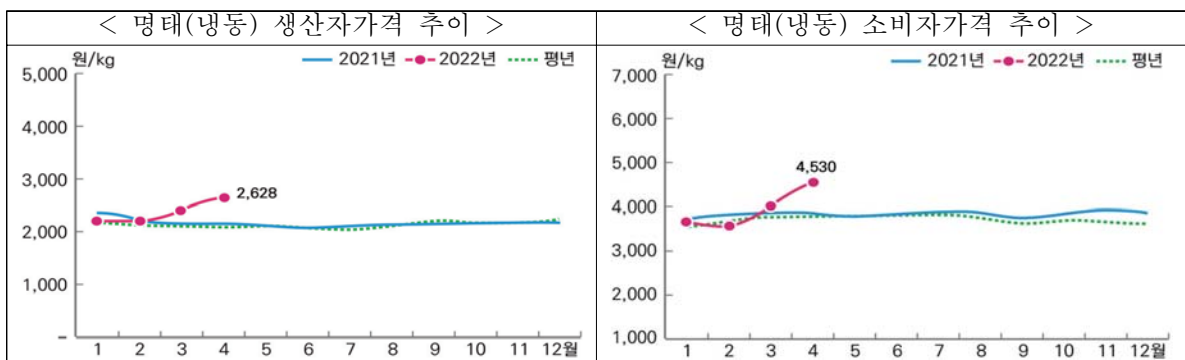
소비자가격 13% 상승, 수입 43% 증가

□ 가격동향(4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13% 상승한 kg당 4,530원)

4월 명태(냉동) 도매 및 소비자가격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우려로 3월에 이어 상승했다.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628원으로 전월(2,384원) 대비 10.2% 상승했으며, 지난해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23.0%, 24.7%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도 전월(4,018원)에 비해 12.7% 높은 kg당 4,530원에 형성되었다. 지난해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16.9%, 18.3%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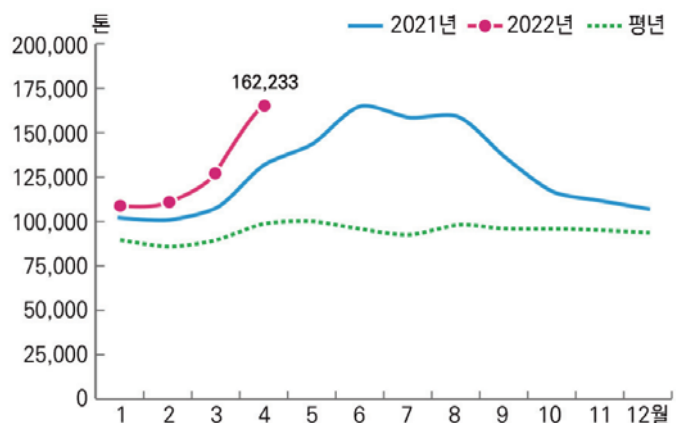


□ 재고동향(4월 재고량, 16만 2,233톤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

4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전월(130,731톤) 대비 24.1% 많은 16만 2,233톤이었다.

이 중 중국 재수출용 물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수출입량 변동이 클 것으로 보여 재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수출입동향(4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43% 증가한 6만 6,792톤)

4월 명태 수출량은 2만 4,282톤으로 전월 (20,693톤) 대비 17.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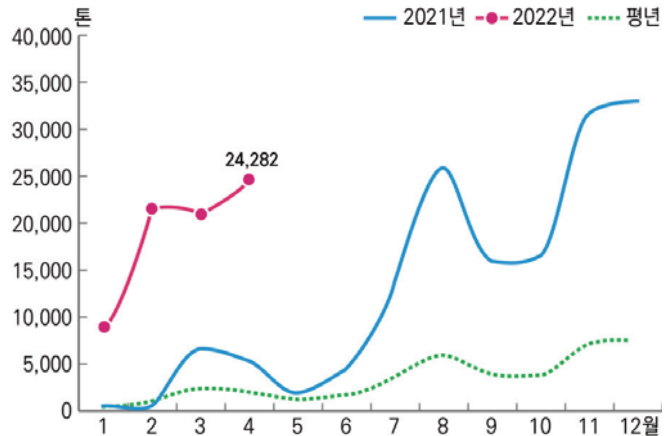
지난해에 비해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많았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검역 강화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직수출되지 못하고,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출대상국 및 제품형태별로는 중국으로 냉동 명태가 평년 대비 136배 많은 2만 1,954톤, 냉동연육 84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 528톤 등이 수출되었다.

4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7만 5,86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많았다.

<명태 수출량 추이>



명태 수입량은 전월(46,715톤)에 비해 43.0% 증가한 6만 6,792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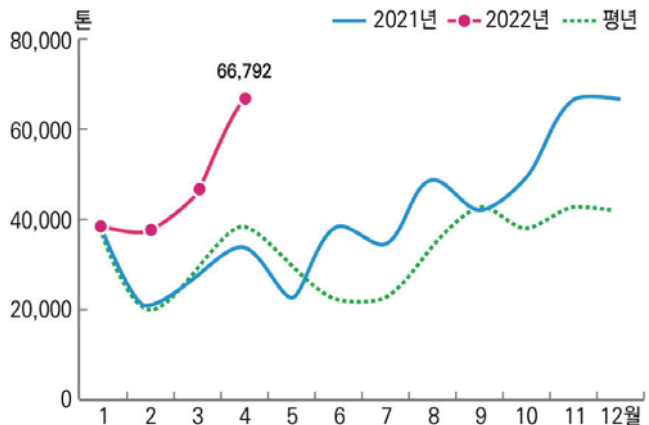
지난해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94.0%, 74.6% 많았다.

이 중 중국 등으로의 재수출용 물량은 3만 6,022톤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4만 6,478톤으로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수입되었으며, 다음으로 미국산 냉동연육(8,153톤), 러시아산 냉동 필렛(7,064톤) 등의 순이었다.

4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8만 9,913톤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55.4% 많았다.

<명태 수입량 추이>



* 자료 출처: KMI 수산물관측 5월호



조승환 해수부 장관, 취임 첫 해양수산 현장 행보 순직선원위령탑 참배, 윤명길 회장 참석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금) 취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 현장을 찾아 수산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어촌뉴딜 300,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새벽 6시 위판 현장을 시찰하고 어업인, 시장관계자 등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수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조 장관은 순직 선원 9,283분의 위패가 봉안

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순직한 선원들의 명복을 빌었다.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도 이날 참배 자리에 같이했다.

장소를 옮겨, 조 장관은 영도 하리항 어촌뉴딜 300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재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재개발 1단계 사업 개방구간에 대하여 점검했다.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협의회 개최 미국, 원양어선 노동권 보호 증진 조치 정보 공유 요청

지난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노동부 간의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협의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노동협의회는 한미 FTA 노동장(章)의 이행 관련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미국 측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자국의 조치를 소개했고,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의 노동권 보호 증진 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협약(제29호(강제노동), 제87·98호(결사의 자유)) 비준 경과를 발표했고, 미국 측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노동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ILO와 Better Work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공개세션에서는 노사 및 시민사회단체 등 양국 국민이 노동장 이행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신청 시, 비용 35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1 이후 받은 경우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10(화)~12.9(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락처 ☎ 051-996-3636

/ 전자우편 : check@koswec.or.kr



“수산정책 대응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조승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답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어업인에게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묻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의 질의에 대해 조 후보자는 “수산자원 관리, 어업인 소득 복지 향상, 첨단 수산기술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해수부 관련은 3개이며 그나마 재탕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해수부와 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수산업은 식량 주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원인 수산물에 대해 국내생산량을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도 더 받아야 하고 어업인을 위해 큰 틀에서 정책적 제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산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양수 의원(국민의 힘·강원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은 “장관 후보자가 수산업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수협, 한수연 등 어업인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수산업에 무관심하거나 ‘수산 패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드렸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 해체를 수산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우선순위를 무조건 수산에 두겠다”고 답했다. 일주일 한번 어업인들을 만나겠다는 가라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 질문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겠다”며 “어업자체를 맨손어업, 연안어업, 연안특수어업, 중형어선, 원양어선 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책수행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촌소멸 문제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어촌소멸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정부에서 준비시기가 많이 늦었다”며 “정주여건, 복지를 개선하고 어업인, 어촌 중심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진행과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소통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는 “수산물 안전부분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수매형식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능력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사 출처: 어민신문, 2022년 5월 6일자



복잡한 수산분야 외식업 동향 파악한다.

해양수산부, 경영실태 등 거래 유형 분석 차원 실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상황에 따른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산분야 외식업계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명태, 대구, 대게 등 수입의존 품목 취급 외식업계의 기초 경영 실태 조사를 파악해 수급 동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산분야 외식업계에 대한 조사 및 통계는 전무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입 수산물의 수급 동향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는데도 피해상황 분석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 횡집 3만8000개소 중 명태·대구·대게·연어 등 수입의존 품목 전문 취급 업체 3300개소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품목별 표본을 선정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

사용 현황, 매출액, 판매가격 등 기초 경영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도·소매 가격 분석 및 수입 가격 조사도 병행해 추진된다. 도매 가격 분석을 위해 가락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국제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명태, 대구, 명란, 대게, 연어 등 주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거래 실태를 파악한다.

소매 가격은 대형마트 3사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활용해 파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신라교역과 동원산업, 한성기업과 사조산업 등 주요 원양 및 수산식품 기업에 대한 주가 동향 조사도 병행 추진하는 등 수산분야 외식업계 전반에 대한 유통구조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출처: 한국수산신문, 2022년 4월 18일자)

어한기 물가안정 위해 정부가 수산물 5,395톤 공급 나서

전통시장·대형마트서 정부비축 수산물 6종 10~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가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5월 17일(월)부터 6월 9일(수)까지 24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6종 5,39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3,185톤, 고등어 832톤, 갈치 435톤, 참조기 430톤, 오징어 418톤, 마른멸치 95톤으로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시에는 소비자가 더 편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른멸치(32톤), 갈치(9톤), 참조기(17톤)는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품 멸치는 롯데마트(5.20~), GS리테일(5.26~), 홈플러스(5.27~), 이마트(5.27~) 등에서 판매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6월 16일(수)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공포장 굴비와 갈치를 판매한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단가로 공급된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품치
부산지부	최상진 사원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	(051) 253-3388	총괄
	이성재 이사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김현애 과장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7	OFIS, 해외수산물투자, 행정	-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3호

발행처 : 2022년 5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편집인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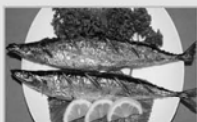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